



MAGAZINE Gu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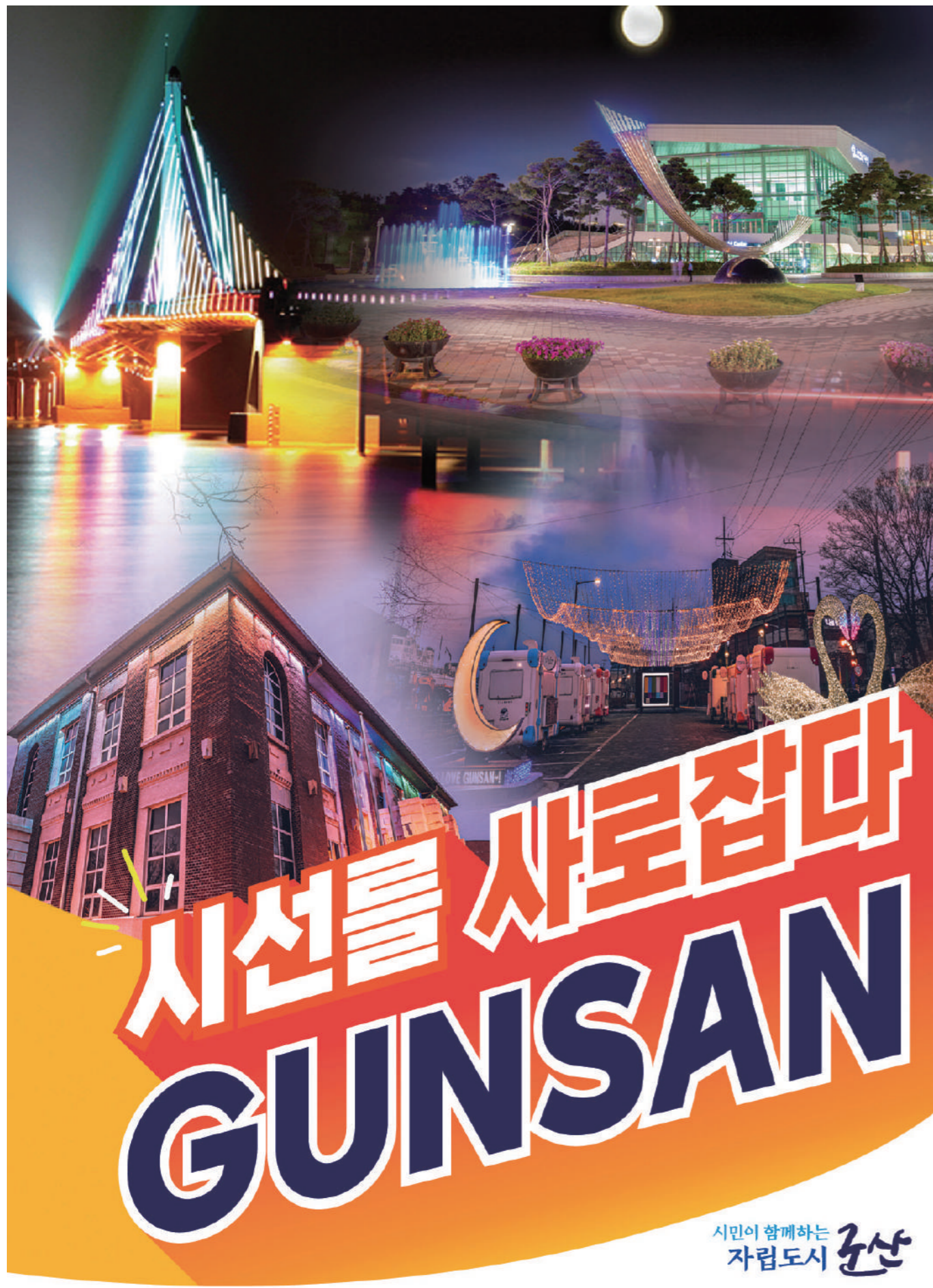
People & Culture in Gunsan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___ 전경호 이비인후과 전경호 원장 ___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김한희 대표 ___ 카페 '몰토 커피' 최선영 대표
___ 극작가 '김영철' 인터뷰 ___ 미니 중식당 '개복동' 최종만 대표 ___ 골목에 남겨진 시민들의 흔적 ①
___ 사회복지사 오준규 사진작가 ___ 이한세 군산시의원과의 인터뷰 ___ 걸어서 걸어서 '고군산군도'
___ '철릭(綴翼) 한복' 전시회 박정미 작가 ___ 걸어서 걸어서 '군산의 5월' ___ 노거수를 통해보는 군산이야기



시선을 사로잡다
GUNSAN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다 함께!
다시 새롭게!**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준비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
더 빛나는 인재로!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7세부터 초등1학년~3학년 저학년논술수업

예비쌤과 함께 즐거운 논술수업♡

귀요미들과
함께하는
논술



- 연령별 인원 제한으로 소수정예 교육
- 공부 성장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
- 어휘력 바탕, 독해작문, 교과논술 연계
- 수업일 : 주 1회(월 4회 - 월, 화, 수, 목)
- 수업시간 : 14시30분 ~ 16시(90분)
16시10분 ~ 17시40분(90분)
- 대상 : 7세부터 초등 1학년 ~ 3학년



유치초등
저학년
논술전문

군산시 미장동 미장빌딩 4층
문의 : 010 4024 8285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_ 이진우 (아이씨엠)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ay0810@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ay0810@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달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10-3548-3383
송지검도관_ 검도체험1달권 / 010-4504-9411
파스쿠찌 수송점_ 커피 음료권 / 010-8465-8281
마음한장스튜디오_ 증명사진촬영권 / 010-7799-7333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시십시오.

E-mail_ jay0810@hanmail.net Fax_ 063) 446-1856

Vol.147 | 2023.06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이너	황수지	jay0810@hanmail.net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청숙	njpslife@gmail.com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온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집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 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드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상상을
그 이상을 향해!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네는 안부_52

도넛의 마음

김물

한순간 텅 비었지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가슴 한가운데 땀 뚫린 채 있을 때
바람이 나를 드나들며 이야기했어
마음속 무거운 앙금 따위 담아 두지 않고
가볍게, 얼마나 좋으냐고
마음은 참 이상해
금세 달라지더라고
무거워지지 않을래
가득 채우지 않을 거야
무언가 꼭꼭 눌러 담을 필요는 없지
어떤 모습이건
나는 나니까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 시라고 하고 어린이 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 하신지요.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시인은 어떻게 도넛의 마음을 이리도 잘 알아냈을까요. 시를 읽다보면 정말 딱 도넛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싶어집니다. 시인은 도넛을 보면서 사람 마음도 이렇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앙금을 가득 품은 인기많은 팔빵을 부러워 할 필요도 없지요. 때론 도넛을 보고 팔빵도 가슴 뚫리게 가벼워지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중요한 건 팔빵은 팔빵, 도넛은 도넛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모습이건 나는 나라는 거. 벌써 올해의 중반을 달려가는 6월도 모두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신재순
시인 / 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동시마중 2021년1·2월호>





‘바른 진단, 빠른 치료’ 어지럼, 이명, 난청센터 전경호 이비인후과

전경호 원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이비인후과 전문의 취득 14년차,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이 몰려 있는 의료 분야로서 말하고, 듣고, 먹고, 향기를 맡고, 인체의 중심을 잡는 이(耳/귀), 비(鼻/코), 인후(咽喉/목구멍) 감각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소실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터다. 의대생 실습 시절 미세현미경 수술로 환자들의 고막을 만들어 주는 교수님 모습을 보고 이비인후과 의사를 꿈꿨다는 전경호 원장은 준수해 보이는 학자풍의 용모부터가 전형적 의사의 모습이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비인후과 인터뷰는 처음인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1980년 군산에서 태어나 자란 군산토박이입니다. 중앙초와 남중, 군고(72회)를 졸업하고 1999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이비인후과 석사과정을 알리지면 관련 연구로 논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군산의료원 이비인후과 과장 역임 후 원광대학교 이과학 임상 조교수 및 전북대학교 외래 지도 전문의를 역임하였고 현재 전경호 이비인후과 의원의 대표 원장입니다.

학창 시절 꿈이 의사였나요.

사실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심신을 수련하여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조부님과 부친께서 언달아 중증 질환에 이환되시어 가까이서 제가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져보자 하는 생각으로 의대 진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를 택한 이유가 있겠지요.

어느덧 전문의 취득 14년차로서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이 몰려 있는 의료분야라는 점에서 관심이 컸고 학생 실습 시절 미세현미경 수술로 환자의 고막을 만들어주는 교수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섬세한 손으로 소리를 찾아주고, 이명을 치료해주며 어지럼을 잡아주는 귀를 전공한 이비인후과 의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의대 졸업 후 인턴 기간에 이비인후과 지원을 했는데 당시 경쟁률이 5:1로서 정말 인기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각고의 노력은 필수적이었고 인턴 평점 A, 인턴 1등의 성적으로 마침내 이비인후과 의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질병 중 유년, 청소년, 노년 등에서 각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유년기에는 중이염이 감기만큼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재발이 잦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신체 구조 발달이 미숙한 2세 전후 아이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생애 첫소리 노출의 80%가 이뤄지는 시기이므로 자칫 방치하게 되면 언어발달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활동의 연령이 빨라지면서 발생 연령도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공갈젖꼭지나 눅혀서 분유를 먹는 것 또한 귓속의 압력변화에 의해 중이염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항생제를 써야 하는 급성 중이염과 장기적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삼출성 중이염을 잘 구분하고 적절한 약물치료가 이뤄져야 하며 필요시 환기관 삽입술의 시술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는 간단한 내시경 진료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비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비염은 코의 내막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러지 반응이나 비강 내부의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콧물과 가려움, 재채기 등을 동반한 비염증성(혹은 알러지성) 비염과 코막힘, 화농성 비루, 후(後)비루, 기침, 부비동 부위의 통증과 압통, 발열, 권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 염증성 비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분원 외래에서 간단한 혈액검사로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면역치료여부(전경호 이비인후과에서는 주사치료 혹은 설하 면역치료를 시험 중에 있으며 설하 면역치료는 연령별



로 종류가 다릅니다)를 결정합니다. 후자의 경우 본원 외래에서 콘빔CT(방사선 조사량이 적고 측정 간편)로 바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본원에서는 검사 및 면역 치료를 원할 경우 전화로 예약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어지럼, 이명, 난청이 혼합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 중 이석증은 그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 몸의 내이(속귀)에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달팽이관과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평형기관이 있습니다. 평형기관은 다시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반고리관은 머리의 회전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이석기관은 머리의 선형(직선)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뇌에 제공합니다. 만약 이석이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으로 유입되면 누워 있다가 앉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누워있다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등의 머리 움직임에 잘못된 회전 자극을 만들어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3배 정도 많고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폐경 전후의 여성 호르몬 변화가 이석증 발생에 일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칼슘으로 이루어진 이석이 중년기 이후의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골다공증에 의해 약해지면 이석증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지럼증은 이외에도 급성전정신경원염이나 메니에르, 편두통성 어지럼증,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 중추성 어지럼증, 경추성 어지럼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전문 간호사 및 평형사, 임상병리사의 전문적 검사와 대학병원에서 사용 중인 어지럼 정밀진단장비 및 시설 투자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빠르게 진단, 빠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증은 내이, 청신경, 뇌 등의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 경로와 이와 연결된 신경 계통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비정상적인 과민성이 생기는 현상으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에 흔히 동반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서는 소음, 노화, 청신경 종양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장애진단이 가능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장비와 보청기 검수 및 초방이 가능한 특허 받은 음장검사 장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은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음악가, 항공기 조종사처럼 직업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내이 손상을 입는 경우와 큰 음악 소리 등에 우발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의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성 난청에서도 이명이 흔히 동반됩니다. 메니에르병이나 청신경 종양에서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이명증 환자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나 머리 외상 후에도 내이에 외상을 입어 이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을 일으키는 약제로는 아스피린, 일부 항생제, 일부 이뇨제 등이 알려

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귀 또는 부비동의 감염, 턱 관절의 교합장애, 심혈관계 질환, 이경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진찰과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나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생겼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불치의 증상이 생겼다’와 같은 이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증상을 악화시키고 만성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본원에서는 개별 차이가 큰 이명 관련 혈액검사, 개별화된 이명 검사, 다양한 원인에 의한 이명 치료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두개자극치료 TMS를 정확한 정량뇌파검사를 통하여 각 환자에게 개별화된 치료를 시행, 빠른 이명 극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여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리가 귀를 통해 들어가면 고막, 달팽이관과 청신경을 거쳐 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난청 즉,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생기게 되며 그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의 난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급격하게 발생하는 돌발성 난청의 경우 단기간에 청력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으로서 초기의 청력 검사 및 자율신경계 측정,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100명당 1명에서 발생하는 청신경교종의 구분을 위해 귀 MRI를 촬영해야 하며 증상 발생 2주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중부스를 순음청력 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도 적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고막 내 주사 치료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사운드 보청기 처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리사운드 보청기는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에서 사용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 1위의 보청기입니다. 이제 군산에서도 대학병원에서처럼 보청기 처방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본원에서는 수요일 오후(클리닉데이)에 관련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비인후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은?

알레르기 비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악화를 예방하려면 우선 알레르기 비염이 어떤 병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환경관리를 통해 원인물질과 악화요인을 피해야 하며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증상이 조절되더라도 재발과 합병증을 막기 위한 꾸준한 치료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예방법으로는 먼지, 온도의 변화, 담배연기나 매연, 화장품, 스트레스 등을 피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애완동물이 원인인 환자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말아야 되겠지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목표는 증상이 없도록 해주거나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환경 관리와 함께 약물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특히 겨울철 외출 시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고 여름이나 겨울철에 실내외 온도 차가 많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증세의 악화를 경험한 경우가 아니면 구태여 음식을 가려서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특정 음식을 섭취한 후 반복적으로 증세가 나타나면 음식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밀, 계란, 꽃게, 우유, 새우, 복숭아, 밀가루 등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증세를 악화시키는 음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지럼증, 이명과 난청의 경우 예방 수칙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어지럼증의 경우 증상 발생 시 빠른 원인 감별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 병변에 대한 감별은 반드시 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면서 호소하는 증상과 관련 없이 안진(눈의 움직임)만으로 발견된 기억에 남는 뇌결핵 환자 및 선천성 안진 환자가 있습니다. 감기 진료를 하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후 어지럼증센터를 운영하며 최근까지 어지럼증정밀검사 이후 발견된 뇌경색 2례 및 청각관련 뇌종양 9례, 전정 발작 및 전정편두통 등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으로 단정 지어 접근해서는 안되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원인감별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명과 난청은 스트레스를 피하고 큰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 대화에서의 소리 크기는 50~60db(데시벨), 기차 및 지하철 내부 플랫폼 85~95db, 극장·공연장 100db, 이어폰·헤드폰 119db정도로 생각하면 되며, 90db이상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105db이상 소음에 하루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난청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경호 이비인후과만의 특화된 진료 콘텐츠를 소개해주시다면?

저희 의원은 군산을 위한 전문화와 첨단화, 그리고 환자를 위한 개별화를 표방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도박이로서 군산의료원 재직 시 군산에서 수술을 하는 의원이 없었기에 모교 의국에 요청하여 교수님들의 순환 진료를 성사시켰으며, 군산의료원에서도 이비인후과 수술을 각 파트별 전문의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원 이비인후과 간호사의 청각사 교육을 사비로 지원하여 군산에서도 돌발성 난청이나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등의 청각 이상을 동반한 어지럼증을 대학과 똑같은 조건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제 고향 군산에서도 대학에서 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 이후 대학에서 이과학을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원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귀를 수술하는 의사였지만 외래 어지럼증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다시 대학으로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군산에서도 어지럼증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여 전부터 어지럼증 정밀검사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며 그러다보니 장소가 협소해짐에 따라 지금의 어지럼 이명 난청센터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타 의원에서 정밀검사로 이석증 진단, 치료를 받고 낫지 않는다며 찾아온 두 분의 환자가 생각납니다. 그중 젊은 여성 환자는 교과서적인 증상을 호소하여 문진 단계에서 전정발작이라는 진단으로 약물 치료 후 다음날부터 호전을 보여 곧 완치된 일이 있었고, 또 다른 학생 환자는 전형적인 전정편두통으로서 증상 조절 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개인병원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외의 추가적 검사까지 모두 정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어지럽다 해서 모두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에서는 그러한 증상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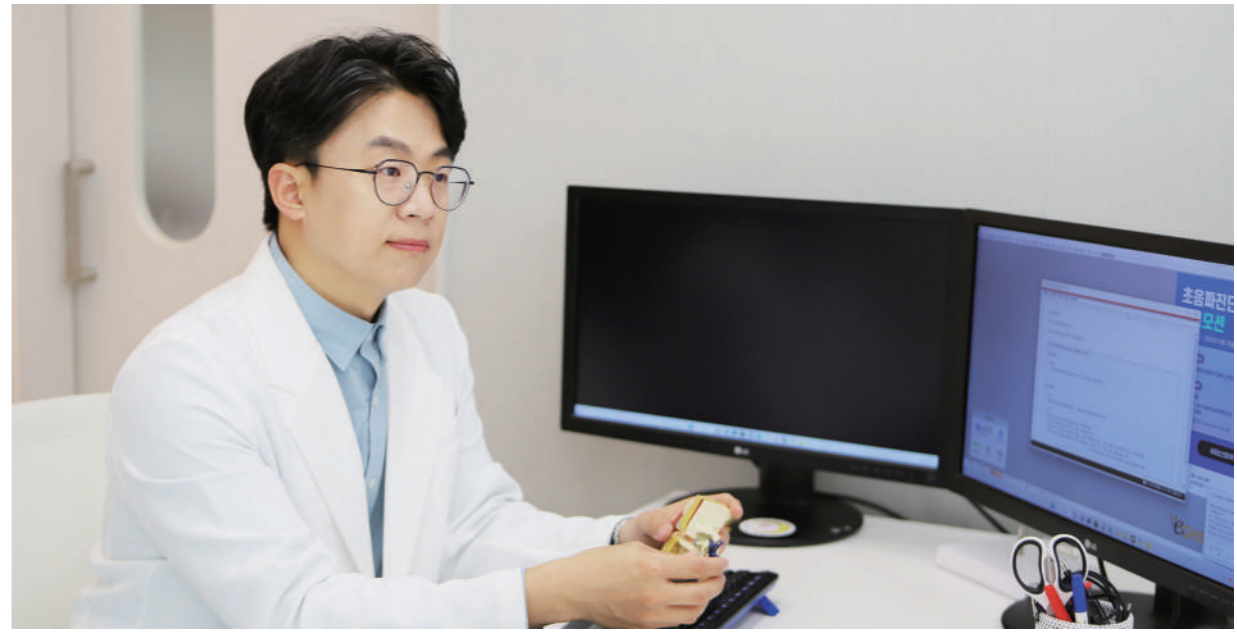
저희 의원은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어지럼 정밀검사 장비와 시설,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시설,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저희 의원을 찾은 환자분들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경두개 자기장치료 TMS 장비를 단순히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 뇌파검사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용량으로 치료하는 최신 장비까지 첨단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군산을 위한 귀질환의 전문화, 첨단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저희 의원의 이명 검사장비는 개별화된 소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MDS검사를 이용하여 환자분마다 필요한 비타민 등을 추천해드리며, 생활습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는 개별화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은 단순 약물치료를 시행해보고 포기하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다각도로 문제점을 찾아보고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반면에 힘든 점도 있겠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증과 이명으로 수년간 고통 받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온갖 검사를 다해보고 MRI 검사까지 해보았지만 뚜렷한 원인도 모른 채 치료를 포기하고 약에만 의존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뒤 마지막 용기로 치료에 임하여 '선생님



덕분에 다 나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격스러운 경험이 모이고 쌓여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점 병원을 향한 꿈이 되었고 그 꿈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환자의 병이 낫듯이 환자의 말 한마디에 의사는 살아갈 이유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검사 장비를完비한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저의 열정과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더했습니다. 어지럼증, 이명, 난청의 마지막 해답을 드리는 전북 최고의 전문 이비인후과 병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점이라 할 수는 없지만 무릇 질환이라는 것이 모두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칙을 지켰음에도 악화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귀 관련 질환은 대부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환자들께서는 결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께서 실망을 느끼는 상태는 의사인 제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부분 의사들의 마음이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좋은 치료 성적을 내고 싶다는 열망 역시 같을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매일 매일을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외에 걸쳐 존경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도 들려주시지요.

연세대학병원에서 이과학을 전문하고 계시는 문인석 교수님입니다. 문 교수님은 자신의 많은 이과적 종양

(주로 청신경교종)환자들에 대하여 연말에 한분 한분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전원(轉院)해준 의사에게 편지를 주십니다. 환자의 전원 때마다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환자들에게 주시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십니다. 물론 FDA 승인이 있는 안전한 장비 위주입니다만 경두개 자기장치료 TNS 등을 대학에 최초 도입한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취미와 사회활동도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사진 찍기와 캠핑이 취미생활이었는데 출사를 나간지도 오래되고 아이들이 크고 나니 캠핑도 언제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딱히 즐기는 취미생활은 없고, 현재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 및 군산시 검도회 이사, 전 청소년자치연구소 사회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정도입니다. 주로 청소년 관련 단체의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 우리 군산에도 원대한 뜻을 품는 청소년들이 무럭무럭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지럼증·이명·난청·면역치료·두통 전문
전경호 이비인후과
군산시 수송동819-3(공단대로252)
T.063)471-5575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김한희 대표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문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청년 발달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한 의의와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이곳을 이끄는 김한희 대표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현을 위해 불도져처럼 밀어붙이는 힘으로 가치가 있는 일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실행하는 김대표 김한희입니다.

낮시간 의미 있는 하루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합니다 사업부'와 커피박(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보통 커피 찌꺼기라고 불린다) 순환 경제를 통해 청년 발달장애인들에게 괜찮은 일자리·지속가능한 일자리 '행복합니다 사업부', 부모님 사후에도 혼자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 홈·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고맙습니다 사업부'를 통해 평생네트워크를 실현하므로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합니다.

조합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사회적협동조합감사합니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성장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지난 2019년 청년 발달장애인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바리스타의 꿈은 이루어지 않아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카페 창업을 결심하여 청년 발달장애인분들에게 바리스타의 꿈을 이루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버려지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양이 상당하다는 걸 느꼈고, 커피박을 새로 활용한다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본격적으로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커피박 제품의 환경적 이점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커피콩 중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추출물의 무게는 사용한 커피콩 무게의 0.2%에 불과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드는 데 통상 약 15g의 커피 원두가 사용되는데, 이 중 14.97g 즉 99.8%의 원두는 '커피박'이 되어 버려집니다. 커피를 만드는 데 기여한 커피박은 버려지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분류된 커피박은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커피박을 땅에 매립하면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CH4)이 배출되고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는 21이 됩니다. 커피박 매립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까지 커피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생활 폐기물의 관리자인 지방단체가 보관했다가 매립 또는 소각하였으며 1일 300kg 이상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커피박만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며, 대부분의 카페에서 생기는 커피박은 생활 폐기물로 버려지게 됩니다. 1년치 커피박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한다고 했을 때 종량제 봉투 값만 41억 원 가량이 발생되며 사실 봉투값은 약과입니다. 커피박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직접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커피 애호'가 반지구적 취향이란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박 자원화 프로젝트는 사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커피 자체에서 비롯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인간에게서 비롯합니다. 폐기물 쓰레기로 분류된 커피박은 실제로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이며, 환경부는 생활 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박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박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커피는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산물로 만든 제품도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커피박 연필, 커피박 종이, 커피박 캔들, 커피박 클레이, 커피박 화분, 커피박 벽돌, 커피박 맥아더 캠핑탄, 커피박 주방 비누 등 30여 가지가 넘는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분장으로 나누어 컬러링, 원자재 분류, 건조, 제품 마무리 공정, 사회복지 보조업무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합의

블로그는 뇌 병변이 있는 친구가 직접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2021년에는 90평 규모의 커피박 팩토리를 세웠어요. 즐겁고 행복한 일 자리를 만들고 여기가 공장이야 카페야 하는 느낌이 나도록! 이곳은 이제 학령기 발달장애인들의 꿈의 회사로 확장되고 있으며 학령기 발달장애 중고등학생들의 취직하고 싶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적협동조합감사합니다는 같이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미래를 지원하겠습니다.



커피마스터가 내려주는 프리미엄 커피 카페 ‘몰토(MOLTO)커피’

최선영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세계 커피 소비 6대국에 든다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관련 사업도 팽창하고 있고 전문 인력도 양성되고 있다. 커피는 이제 기호품을 넘어 생활의 일부로 자리할 만큼 대중화됨으로써 판매업소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카페를 오픈했다 해서 반드시 커피 전문가라 할 수는 없을 터이고 그에 따르는 전문 지식의 공부가 필수적일 텐데 그런 전문가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주할 때 마니아들로서는 일말의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커피학원장이면서 바리스타 자격시험 심사위원이자 카페 ‘몰토커피’의 대표이기도 한 최선영 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본다.



본래 인천 생인 최선영 대표가 부군의 직장 따라 군산으로 이주한 것은 2017년도, 카페 ‘몰토커피’를 오픈한 것은 2021년도다. 인천 거주 당시 커피의 매력에 빠져 전문 공부를 이수한 뒤 커피학원 소속 시간제 강사를 했던 그녀는 군산에 자리 잡은 후 롯데마트 및 롯데몰 문화센터에서 각각 2년과 1년 바리스타 양성 강사를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최 대표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최 대표는 자신이 양성한 제자에게 문화센터 강사직을 넘겨주고 재작년인 2021년도 소룡동 대로변 현재의 위치에 약 40여 평면적의 카페 ‘몰토커피’를 오픈했다.

이태리어로 ‘매우’라는 뜻의 ‘몰토’는 최 대표가 내려주는 최상급 에스프레소 및 아메리카노를 비롯하여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다양한 라떼 류와 과일 에이드, 스무디, 쥬스 류와 빙수를 망라하여 그녀가 직접 구운 빵들까지 시각만으로도 식감을 돋운다. 또한 아기자기한 다양한 공예품들이 멋스럽게 진열되어 누구라도 한 두 개쯤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법 하고 그래선지 카페 공간은 단골 마니아를 비롯하여 인근의 직장인들로 채워지는 일이 많다.





최 대표는 카페 인근에 '몰토'커피학원을 열어 2019년부터 2023. 1월까지 약 4년에 걸쳐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창업반 수업은 1:1로 현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커피 마스터 자격 보유자이면서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직접 지도하는 그녀의 교육에는 많은 사람의 수강 신청이 잇따랐다. 바리스타 자격은 통상 2급부터 시작하여 1급으로, 그리고 트레이너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심사위원이 되고 싶으면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시험의 심사 역시 본인이 담당한다.

커피는 이제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마치 밥과 같은 존재라 말하는 그녀는 같은 커피라 해도 바리스타에 따라 천차만별의 맛이 구현되는 만큼 최상의 맛을 찾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커피를 즐기는 중요한 요인이라 들려준다. 자신의 경우 에티오피아 산 예가체프와 알살바도르 원두를 가장 선호한다는 그녀는 커피 온도가 대략 80도C일 때 본연의 맛이 구현되고, 드립커피의 경우 92도C ~ 86도C 사이에서 최적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귀뜸해주기도 한다.



삶에서의 보람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의 제자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해서 카페를 개업할 때 직접 가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는 답이 돌아온다. 낯선 군산에 정착한지 7년째, 이제는 군산 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이방인에 대해 따듯하게 대해주는 군산의 넉넉한 인심에 정겨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언젠가 고향인 인천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오히려 고향임에도 적응이 안 돼 빨리 돌아오고 싶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한다.

여가 시간에는 커피 로스팅과 빵 굽는 일로 소일한다는 최대표, 커피의 모든 것에 관한 궁금증과 기초적 지식이 필요하다면 맑고 고운 인상의 그녀를 찾아 커피 한잔 나눠보기를 권하고 싶다.



'몰토커피' 1호점
 군산시 공단대로 583
 (소룡동 '속편한 내과' 옆)
 (건물 후면 주차장완비)
 T.063)468-0920

Ice Block
빙수야!
여름을 부탁해
 순수 눈꽃 빙수

딸기빙수
 ₩ 12,000

망고빙수
 ₩ 12,000

인절미 빙수
 ₩ 10,000



가무극과 시극으로 문예활동에 푸른물결을 일으킨 극작가

가무극 <고운 최치원>의 극작가 김영철 님과의 인터뷰

글 | 박모니카
sijiques@daum.net

노마디즘(Nomadism)-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부정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철학적 개념-을 사랑하는 극작가이자 시인이 있다. 그는 단순히 유랑하며 여행하는 삶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도 자신과 주변 사회공간을 바꾸거나 교차시키는 창조적인 행위를 만드는데 두려움이 없다. 그는 김영철님(군산문인협회 수석부회장)이다.

지난 5월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가무극 <고운 최치원>공연이 있었다. 1000년도 더 된 역사 속 인물 최치원을 어떻게 현대사회로 불러오는지 궁금했다. 군산 귀향 후 아이들과 함께 지역명소를 관광하던 차, 옥구향교 문창서원과 고군산군도에서 최치원의 여러 흔적을 만났다. 그래서 순수한 지역 연극이 보여줄 최치원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고 주변 지인들에게 열심히 홍보했다. 이 연극 <고운 최치원>의 각본을 쓴 사람이 김영철극작가다.

무대 위로 오른 가무극 <고운 최치원>은 상상이외로 대작이었다. 문학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 뮤지컬 형식의 음악, 화려한 무용과 영상은 한마디로 종합예술이었다. 김 극작가는 다원예술이라는 표현으로 가무극 <고운 최치원>에 대한 평을 했다. 대중매체에 처음으로 인터뷰한다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군산시민들에게 있어서 행복하다고 전했다.



Q. 작가님 자신을 '나는 누구인가?'로 말씀해주세요.

A. '시 때문에 배부른 사람'이죠. 시는 정신적 풍요의 상징이자 산물이니깐요.

Q. 시와 시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시는 정형화된 글 소리이고요, 시극은 시와 연극과 낭송, 그리고 사람이 함께 있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말씀드립니다.

Q. 처음으로 <고운 최치원>을 통해 가무극이라는 연극을 보았는데, 정말 화려한 연출무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기획을 종합예술, 다원예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연극에 대한 총평과 함께한 분들도 소개해주세요.

A. 가무극(歌舞劇)이란, 춤과 노래를 토대로 劇의인 이야기를 엮어 가는 종합 무대 예술입니다. 요즘의 유행인 뮤지컬방식인데, 배우가 연기와 노래, 춤의 한계, 제작비의 한계 때문에 단순하게 성악가와 20여명의 김정숙 무용단이 함께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작년 <쌍천 이영춘>공연 때도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었지만, 올해 공연도 이 모든 것을 순수 우리 군산 구성원들이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작품의 가치를 빛냈습니다. 특히 역사극의 어려움 점인 의상과 분장, 음악, 대공연장의 무대, 스케일 등을 잘 조화시킨 한유경

연출가의 연출이 돋보였어요. 제 가사에 곡을 붙인 김진아 작곡가, 노래로 부른 바리톤 문용재씨, 주연 배우 김성현씨를 비롯한 배우들, 극단 아도 등, 참여한 모든 이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에너지를 마음껏 분출한 공연이었습니다.

가무극과 시극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가 쓴 시집에 대한 대화로 옮겨갔다. 그의 대표시집으로 <사그랑주머니> <그리움도 자란다> <바다는 알고있다>가 있다. 올해에도 신간 시집을 준비 중이라며 그의 작품 일부를 보았다. 그중에는 군산사람으로서 군산의 향기가 가득한 100여편의 연작시들이 있어서 이내 눈길을 끌었다. 우스개로 '제가 출판해 볼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모니카님이 맡아주면 영광이지요'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

Q. 시인으로서 보통 어떤 주제의 시를 쓰시나요?

A. 시는 자신에 대한 삶의 가장 진실한 참회록입니다. 한 편의 시에 내포한 주제는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화자)의 중심 생각이어서 시 속에 들어 있는 시인의 중심 사상이나 정서를 뜻한다고 봅니다. 저는 대중적 감수성의 확보를 위한 서정시보다는 지성과 서정의 조화를 추구한 주지시(主知詩)를 중심으로 억압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는 참여시를 함께 추구합니다.

Q. 좋아하는 시인과 그의 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A. 김수영을 시인을 좋아하는데, 그의 비판적이고 철학적 시는 당대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과의 공통점도 많아서 더 마음이 갑니다. 상고를 졸업한 일, 일본과 중국에서 공부한 일, 연극과 영어를 좋아하는 점, 참여시를 쓰고 싶은 제 사상과 일치하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그의 시 <눈> <풀>도 좋지만 특별히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는 독재 정권의 탄압이나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한 채 사소한 불만에만 목청을 높이는 소시민성을 비판한 작품입니다. 그는 한 편의 시마다 관습적인 언어가 아니라 자기의 언어를 추구하는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의 변화기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이 시는 그의 모습이 가득 들어 있어서 더욱 울림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시인인 그는 지금까지 1600편 이상의 시를 썼고 아직도 미 발표작이 1300여개가 있다고 해서 더욱 놀랐다. 극작가로서 연출가로서, 사회인으로서 바쁜 일상에 어떻게 하면 그런 다작이 가능한지 물었다. '펜만 잡으면 글이 나온다는 고은 선생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지도 모르죠' 라고 말하며 웃었다. 특별히 군산지역출신 시인들, 채만식, 고은, 이병훈, 문효치, 채규판 시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시 이외에도 연극, 시극, 행위예술, 다원예술을 통해 그가 보여준 70여편의 작품은 공통점이 있었다. 군산지역을 토대로 한 역사극이 중심이었다. <칠지도>, <진포대첩>, <추아우중>, <안중근>, <탁류>, <짜보선창>, <아메리카타운>, <쌍천 이영춘>, <고운 최치원> 등. 앞으로도 역사극 위주로 과거와 현재를 잇고 싶다고 내년엔 나올 작품 하나를 소개했다. 전통의 군산문인들 이야기를 쓴 <우리들의 자화상>을 시극으로 연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예술인이자 군산 문인협회임원으로서 군산문화도시로의 방향에 대한 소견과 바람을 물었다.

"문화도시사업이란 2018년부터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예술기획, 연출자로서 지역사회 예술 분야에 리더라고 자부하고요 군산예총에는 10여개 예술단체에 1,000여명의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문화도시에 함께 참여하고 수행한 공동체적 협치가 없어서 아쉽구요 또한 문화도시의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문화예술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씽크탱크, 즉 경영체계의 미숙성과 군산이 갖는 근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과 지역을 특화하지 못한 점 등도 안타깝습니다.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하여 같이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군산시민으로서 했던 일 중 가장 보람된 일을 묻는

질문에 대한 그의 말이다.

"군산에서 1987년 최초로 연극협회를 만들었고 연극 전용소극장 운영과 2015년에는 영화협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군사문화 잔재를 되돌아 본 '아메리카타운' 장편영화를 공동 제작한 점입니다.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연극협회에 지부장으로 재직 중 제32회 전국연극제를 군산에 유치한 활동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솔직함과 안정감을 보여주는 녹색을 좋아한다는 그는 녹색처럼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중간색, 균형이 잡혀 있는 색과 같은 사람, 평화주의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군산에 최초로 가무극과 시극을 보여준 연출자이자 극작가 김영철시인.

그의 노마니즘적 삶의 태도는 개인을 향한 가치를 넘어서서 군산지역의 고전과 현대라는 시대를 초월하



현실과 환상의 거리 - 김영철

옥구염전에 골프장이 우렁차다
 맞바람을 부수며 삼삼오오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리면
 현몽을 깨고 날아오르는 궤적
 새가 되고
 독수리가 되고
 신천웅信天翁이 되었다
 수십 년 땀의 냄새
 마법의 새만금
 날아오르는 흑백의 경계를 돌아다녔다
 하늘과 바다의 자유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알바트로스
 홀인원보다
 저 바닥에 잠들어 있는
 슬픈 염분의 발자국 소리
 깃대마다 환상이 퍼덕거렸다

는 타임머신이자 지역민들의 변화무쌍한 능동적 생물자원을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검붉은 분화구 같았다. 그의 용출하는 에너지 광판 위에서 있으면 잊혀져 가는 군산문인들을 되살리고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의 순수한 영혼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펼쳐질 것 같았다.

근대소설의 백미를 자랑하는 <탁류>의 작가 채만식복귀운동을 포함하여 역사 속 군산지역 인물들(문화, 예술인, 보통사람들 얘기까지)을 엔터테이너 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다원예술의 극치를 보여줄 것만 같다. 넓은 농경문화, 해양문화, 기업문화, 근대문화가 공존하는 군산에서 대표적인 고유의 브랜드의 창출과 생태계의 시스템을 강조하는 그는 근대역사와 고군산군도와의 연계, 최치원의 설화나 소설 속 탁류, 그리고 만민보를 현실로 재구성하는 것을 꿈꾼다. 현재 군산문인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그는 상반기문인협회활동- 백일장 대회, 문학기행, 춘계시화전-을 주관하였고 6월에는 시극 <6월 애국을 담다>를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살고 싶은 그의 모습은 화려하다. 문학인으로서 지금까지 쓴 1,700여 편의 시를 계속 출판하는 것, 연극인으로서 시(詩)를 중심으로 한 시극(詩劇)을 만드는 일, 영화인으로서 예술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열정과 희망사항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 <현실과 환상의 거리>한 편을 들려드린다.





조리 기본 '식약동원(食藥同源)'

최 대표의 음식에 믿음이 가는 것은 한 때 천연염색과 약초에 빠져들어 경옥고 제조 비방도 터득할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질병 진단과 치료 및 예방에 사용하는 천연물질을 약으로 정의함으로써 대부분의 음식들이 약으로 사용되는데 이로써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의미에서 '식약동원(食藥同源)'이라 하거니와 따라서 질병의 치료보다 먼저 몸에 조화로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것인데 최 대표의 음식은 바로 이것을 따랐으리라는 믿음에서다.

사실 최 대표는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출신이다. 하지만 도중에 전공을 도자기로 바꾼 케이스로서 졸업 후 전남으로 도자기 공부 차 내려가 생활하면서 천연염색과 약초의 매력에 빠져 웬만한 산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헤집고 다녔다한다. 2013년 군산으로 돌아온 최 대표는 익산 식품클러스터에서 2년간의 직장생활을, 그리고 월명동 신흥 뒤편에서 1년 동안 '상해임시정부'라는 중식 주점과 신흥동 말랭이마을에서 '다락'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사태 직전 모두 정리한바 있다.

미니 중식당 '개복동' 최종만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개복동 시민예술촌(구 우일시네마)과 오랜 휴관 상태인 국도극장 방향 중간쯤에 약 5개월 전 개업한 미니 중식당 '개복동'이 시선을 끌고 있다. 10여년 전만해도 수석(壽石)가게였던 이 건물은 몇 차례 변천을 거쳐 퓨전 중식당으로 거듭난 것인데 메뉴는 '안심짜장'과 '찐짬뽕' '레몬크림새우' '유린기(치킨샐러드)' 달랑 네 가지다.

이곳의 최종만 대표는 중식의 수많은 가짓수 중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짜장과 짬뽕을 자신의 스타일로 특화했다. 그리고 예약 메뉴로 레몬크림새우와 유린기를 추가한 것인데 장소가 사람 통행도 뜸한 외진 동네인데다가 아직 개업 초기라서 홍보가 덜 되었지만 다녀간 고객의 반응이 좋아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곳이다.





중식당 '개복동'의 짜장이나 짬뽕은 일반적 짜장, 짬뽕과는 시각적으로나 맛에서 차별화된다. 스테이크 짜장, 안심 짜장으로 불리는 짜장의 경우 마치 간짜장과 같은 방식으로 고기와 야채를 볶아 물이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꾸덕 꾸덕한 게 특징이다. 이곳을 다녀간 블로거의 후기에서도 해물파스타와 짬뽕의 중간쯤으로 여겨지는 풍부한 해산물 재료가 들어간 짬뽕 맛도 일반적인 짬뽕과는 다른 깔끔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국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필자도 이곳 짬뽕 국물 특유의 감칠맛으로 그릇을 남김없이 비우는 최초의 경험을 했을 정도다.

문화 지대로 기지개 켜는 개복동 거리

식당의 주변에는 공연·전시 공간인 시민예술촌(구 우일극장)을 비롯하여 삼계탕으로 유명한 운정식당, 아리울역사문화(대표 문정현), 카페 BARAE(바레), 극단 등당애, 서예협회 군산지부 鎭浦書樓(진포서루), YOUNG 색소폰동아리, 짱구왕돈가스, 힐링과메기, Flower/plant shop, 매듭공방 더하다마크라메, Ordinary의상, 그린아트연구소(대표 김덕신), 빼다지작업실, 디어, 풍풍, Minimade잡화점공방, 7080알리바바주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튜디오 몸(MOMM/대표 최재희), 한겨레문화센터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공방, 먹거리 업소들이 문을 열고 있고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조성되어 있어 산책 삼아 여유롭게 둘러볼만한 곳이다.

퓨전중식당 '개복동'
 군산시 중정길10(개복동9-8)
 대표 최종만
 HP:010-4660-1420



걸어서 걸어서 골목에 남겨진 시민들의 흔적 ①

원도심 구석구석 걸어서 떠나는 시간여행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의 의미'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월명동은 일제강점기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동네로, 지금도 100여 년 된 적산가옥들이 골목에 여기저기 남겨져 있다. 부유한 일본인들이 살았던 원도심과 그곳에서 쫓겨난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상반된 모습이 한데 모여 있는 삶의 현장이었다.

부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모 반듯한 골목길과 언덕배기 비탈진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은 시간이 흘러 아픔을 떨쳐 내고 새로이 그려진 벽화를 통해 관광지로 변하는 중이다.

군산항쟁관



고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벽화와 책상



수갑과 태극기의 모습



손 고정 형틀



동국사로 향하는 골목



동국사길에 위치한 군산평화박물관



군산항쟁관 내부



군산항쟁관 내부에 전시된 순국선열의 초상



신흥동 일본식 가옥



군산평화박물관 꽃마차



항쟁관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놓여 있다.



신흥동 일본식가옥 안쪽에 보이는 긴 복도

순국선열을 담다 '군산항쟁관'

군산항쟁관은 100여년 된 근대건축물(주택)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당시 주택의 형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쟁한 역사를 전시·체험하는 공간이다. 항쟁관 내부에는 1920년대 미선공과 부두 노동자들의 항쟁, 옥구농민항쟁을 비롯한 소작쟁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기미독립선언문과 백범 김구 선생·윤봉길 의사·유관순 열사·김좌진 장군·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설명한 액자, 1인 체험감옥, 고문하기 위해 쓰였던 형틀을 재현한 모형 등이 전시돼 있다.

일본식 목조건물 '히로쓰가옥'

국가등록문화재 신흥동 일본식가옥(히로쓰가옥)은 지난 1925년 일본인 포목상 히로쓰가 지은 건물로, 영화 <장군의 아들>, <타짜> 등을 촬영했다.

집주인 히로쓰가 인력거를 타고 들어왔던 출입문과 마당을 향해 전면 창이 난 2층 목조건물, 일본 부잣집 정원의 모습이 보존돼 있다. 해가 잘 드는 긴 복도가 쪽 이어져 있고, 그 안쪽에 일본식 온돌인 '다다미'를 깔 여러 개의 방들이 널찍하다. 단, 오래된 목조건물 사정상 내부 출입은 불가하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월명작은도서관 앞 작은 조형물



동국사길 뒤편으로 올라가면 월명공원이 나온다.



군산체육관

복싱 챔피언 양성소, 군산체육관

동국사길은 아기자기한 멋이 가득하다. 동국사길 입구에는 1960년대 초 당시 복싱의 산실이었던 ‘군산체육관’을 중심으로 소담스러운 벽화들이 가득한 골목길이 있다.

군산평화박물관 꽃마차 오른쪽이자 산들학교 앞에 놓여진 ‘월명산 가는 길’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면 주택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들이 여행객을 맞이한다. 하얀 담벼락 화폭에 사갈의 <에펠탑의 신랑신부>·<산책>,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밤의 카페테라스>, 박수근 화백의 <나무와 두 여인> 등 분위기 있는 벽화와 1980년대 모습이 남아 있는 군산체육관 외벽에 그려진 당대 최고의 복싱선수 ‘슈거레이 레너드’가 여러분들을 반길 것이다.

복싱 챔피언 김완수 관장(1935~)의 손때가 묻어 있는 군산체육관은 1960년대 군산 아마추어 복싱연맹 회장인 이영춘 박사의 후원으로 현재의 자리에 자리잡게 됐다. 당시 선수들의 성적은 실로 놀라웠으며, 군산에 ‘복싱 열기’를 가져오기도 했다./김혜진 기자



‘사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휴머니스트’

사회복지사 사진작가 오준규 님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난 5월 20일, 산복동 소재 ‘세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홍원표)’에서 가족사진 촬영행사가 있었다. 발달 장애인 대상이지만 비장애인도 포함하는 행사로서 센터 실내에 간이 사진관이 설치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경 까지 약 30여명의 가족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이날의 행사는 사회복지사로서 14년에 걸쳐 약 2천여 가구의 사진촬영 봉사를 지속하고 있는 오준규 작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는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에서 사진학을 전공한 오 작가는 전주가 고향으로 2009년도 이후 시각예술을 통한 복지사업에 헌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휴머니스트로 회자되는 인물이다.

1990년대 후반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진의 매력에 빠져든 오 작가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오찬에 ‘의지의 한국인’으로 초청받은바 있으며, 2003년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1세대로 불리는 최민식 선생으로부터 사진 입문을 권유 받고 관련 서적들을 탐독,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기록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국내 역량 있는 청년 작가 발굴 육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과 한국사진협회에서 공모한 2030 청년작가 10인에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로 연작/포트폴리오 부문에서 청년작가상을 수상함으로써 이를 시점으로 국내에 사진을 발표하게 된다.

2009년도 시각예술을 통한 복지사업을 시작한 오 작가는 가족사진 촬영 기회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 모금, 사랑의 열매, 전북은행 사회공헌기금 제안을 통해 2020년까지 12년에 걸쳐 주말을 이용, 전북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세대 가족사진을 촬영,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써 2012년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분야업무 추진 등의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향상 공로자로 선정됨으로써 이때 받은 포상금 전액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바 있다.

2015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연자원의 이해 ‘pain earth, pain us 사라진 것발’이 교과목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듬해 JB금융지주사와 함께 캄보디아 사진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한 오 작가는 2017년 3월 SNS를 통해 전국 최초로 ‘촛불을 기록한 사람들 63展’을 기획, 40여 일간 전시를 열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평창문화올림픽 ‘문화를 더하다’ 선정 사업/세익스피어 소리극 다국적 11인 배우 촬영을 진행한바 있다.

전주국제사진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 2020년까지 EBS, KBS, SBS, 케이블TV 등의 다양한 문화, 시사프로그램에 18회에 걸쳐 ‘오준규 작가의 사진입문 동기 및 활동’ 등이 방영되고 2018년 부산박물관 최민식 사진 조성 관련 자문을 담당했다.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일을 천직으로 삼으면서 그는 스스로 사회적 비주류를 자처하고 있다. ‘사람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역사를 만든다.’는 좌우명을 신조로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속에서 시대의 얼굴을 주제로 꾸준한 작업을 하고 있는 오 작가는 2009, 2011, 2019년도 들어 진보적 성향이라는 이유로 전시 대관 취소와 전시 중단 등 창작활동에 큰 고충을 겪기도 했다.



왼쪽부터 홍원표 센터장, 장애인인권연대 심지선 대표, 김형일 시설담당, 오준규 작가

<전시>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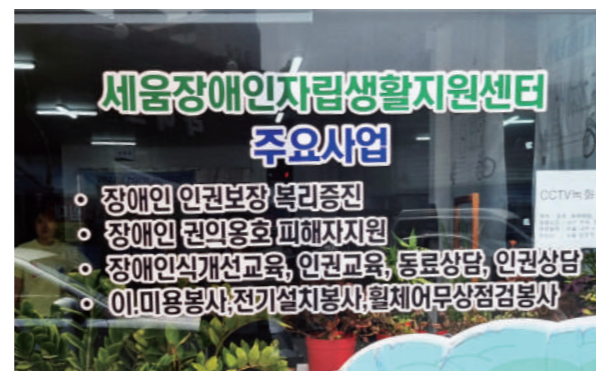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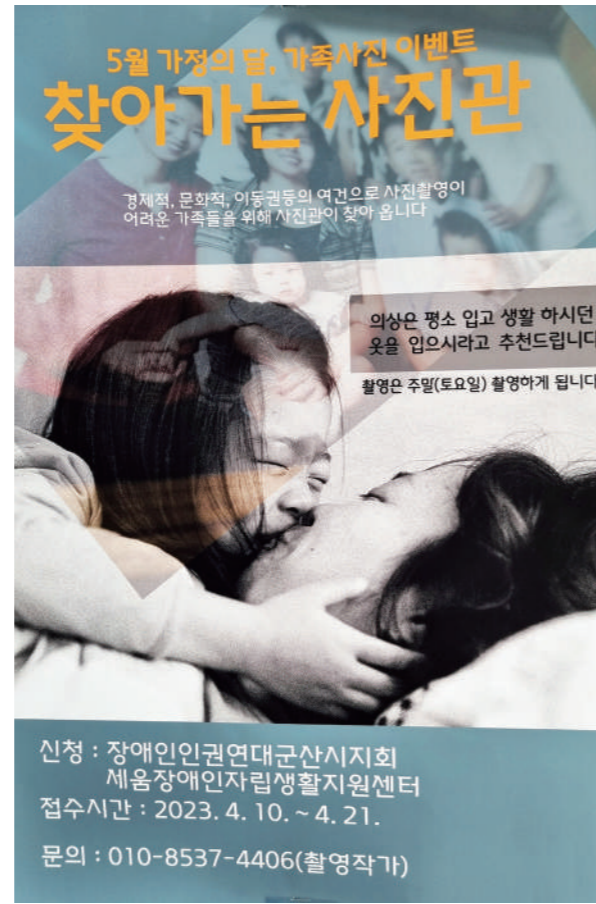
-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
연작'2030청년작가 10인 그룹전' /2008, 한국예총회관
- 김대중, 노무현 前대통령 추모전 /2009, 전주시민갤러리
- 우리시대의 얼굴展(휴먼스토리) /2010, 전주시민갤러리
- 천안함 침몰 1주기 특별전 /
2011, 전주시민갤러리(보훈지청 초대)
- 'pain earth, pain us 사라진 갯벌'전 /2012, 전라북도예술회관
- 전주국제사진제 초대전 /2013, 2016, 전라북도 예술회관
외 10여회

<저서>

- 추모,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국장·국민장 기록사진집
(국립중앙도서관/2010)
- 현충원이 울던 그날·국립중앙도서관/
2011(비매)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 'pain earth, pain us 사라진 갯벌' (국립중앙도서관 2012)
-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난 가족사진 이야기/
(국립중앙도서관 2018)
- 우리시대의 얼굴/2020
외 4건

<보도·방송편성>

- 08~19 한겨레,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외
전북중앙신문 '자랑스런 전북인'
- 2009 KBS 문화에세이 휴 / MBC 홍석찬·송지훈 라디오쇼
- 2012 KBS 투데이전북 / JTV 전주방송 문화 향
- 2014 KBS 아침마당 / 일요일에 만난 사람
외 5회



<기획>

- 행복한 순간으로의 초대(시각예술을 통한 복지사업. 해피빈, 사랑의 열매, 전북은행)/2009
- 대한민국 사진축전 2013 SETEC
최민식 특별기획/2013
- 전주국제사진제 집행위원회/2016
- 촛불을 기록한 63인전 /전주향교 2017
-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30주년 특별기획 전시/2018
-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 심사위원/2019
- 전국인권작품공모전심사위원(전라북도)/2021
-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예술제 심사위원/2022
외 다수

<공적>

- 김대중 대통령 '의지의 한국인' 청와대 초청 /1999
- 2030 청년작가 10인전 상/2008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향상 공로자 선정, 포상/2012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감사패/2012
- 전라북도지사 표창/2012, 2017
외 다수

오준규 작가 연락처
Mobile 010-8537-4406
blog.naver.com/ojk0719

고대의 어느 먼 곳에서 발산으로 유배당한 느티나무 시인

이한세 군산시 의원과의 인터뷰

글 | 박모니카
sijiques@daum.net



Q.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인을 만나다기 보다는 여러 지역주민 중 한 사람을 만나 편하게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시인과 시 한 줄 들려줄 수 있을까요?

A. 시인이라고 물으니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종종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있다면 출판사 창비에서 시집 한 권 내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농사만 지을 때보다 정치를 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감정이 메마르고 지칠 때 시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는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가슴을 때리는 것이라고 느끼는데, 요즘 시는 너무 현학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많더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류시화시인의 시집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에 나오는 시들이 좋아요, 그 중 <오늘은 나의 뒷, 내일은 신의 뒷>과 같은 시는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매우 좋아해서 가끔 좋은 시 나눔도 합니다.

Q. 농사일을 하는 농부로 살다가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시작점은 정당활동인 민주노동당원부터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인의 희망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이 실제 현장에서는 반영이 안되었어요. 농민 관련정책요구나 군산의 핵폐기장 같은 지역현안문제에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때 한 선배의 조언에 따라 정책가의 모습으로 바꾸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사회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 라는 가족들의 조건을 담보로 시의원에 출마했었습니다.

Q. 시의원으로서 재선되어 6년 차 정책입안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A. 제 지역구(대야, 개정, 성산, 나포, 서수, 임피)의 특징 중 하나는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강을 끼고 있는 나포면은 익산시와 가깝고, 만경강이 가까운 대야면은 김제와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민들 역시 경계지역에 사는 경계인의 피해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익산과 군산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주민으로서 받는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지요. 핵폐기장 운동 때 '생거부안'을 주장해서 지금의 아름다운 부안이 지켜진 것처럼, '생거나포' '생거대야'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만나는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사는 곳이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말하지요.

이런 지역민의 경계의식을 바꾸고 마음을 하나로 통합한 구체적인 의정활동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대중교통 버스문제 해결입니다. 시의원이 된 후 예산을 분석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구 내 기존의 노선버스를 콜버스로 바꾸는 제도를 확립하여 임피-서수는 시행 중, 대야-개정은 시행준비중, 성산-나포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대야 철길 주차장 문제가 드러났지요. 대야 오일장에서 주기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주차장 문제는 민원요구사항 1순위였습니다. 시장주변의 땅이 비싸서 어려움을 겪을 때 철도시설공단과 상의해서 주차를 위한 좁은 길 활용으로 이끌어냈구요,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일장을 찾아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무거운 손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Q. 이번에는 문화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군산시 문화도시센터에서 지정한 문화시범구역으로 대야면이 선정되었는데, 이점에 대해 주민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까요.



나는 숲 그늘에 쉬게 되었다.
논밭을 일구며
행여
누가 흠을 뒤늦게 보지만
관심 받을 찾는 이 아무도 없고
높은 산 힘겹게 오른 해는 수미 넘어간다.

한훤당 돌고
가끔은 막걸리도 받아주지만
막걸리가 식초가 되고
한훤이 다 팔려
아무도 찾는 이 없고

그래도
강작센네 나를 찾아
그 누구를 위하하여

오늘은
사람이 그리워
평이라도 돌아버렸다.

군산시 시의원이자 농부시인 이한세님의 자작시 <유배(流配)>의 전문이다. 땅이 좋아 논밭을 일구던 농부가 어떤 이유로 시의원이 되어 시민들을 의견을 대표하는 정책입안자가 되었을까 궁금했다. 그의 지역구인 대야면이 올해 군산문화도시시범지역으로 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인물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기꺼운 맘으로 받아주었다. 오월봄비가 대야의 산야와 장터를 부드럽게 덮어주던 어느 날, 군산문화도시에서 주최한 <장터미술관>에서 그를 만났다.

미술관에 들어서는 길, 만나는 상인들마다 정감어린 인사로 조우하는 그를 뒤따라 가면서 '시의원 맛네'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이나 예의있게 귀 기울여 듣고 인사하는건 당연지사겠지만 정치인이 진정으로 시민의 대표자가 되어 그들의 맘과 동화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던가. 그러나 그의 몸짓은 결코 어깨에 완장을 차고 거들먹거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과는 완전 달랐다.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또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그는 시의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말처럼 '농부'였다.



A. 시의원이지만 의정분야가 다르고 문화의 개념을 전문가처럼 깊이있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대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예, 추억뜨락)이 끝났는데, 더 이상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소득을 창출해서 새로운 모습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대야경제의 특성 중 하나가 농협의 비중이 크다는 점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농협의 경제축과 대야시장의 경제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문화의 역할에서 보자면 농협의 역할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야시장까지 하나로 묶어져서 통일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문화와 경제생활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으로 가야 대야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대야가 문화시범구역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구요,

대야민 모두가 공적인 개념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대야가 문화공간의 주체성을 갖게 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떠나 평범한 지역주민들, 문화예술전문가들, 문화도시기획자들 모두가 문화도시로의 목표와 방향성을 서로 공유하길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의 획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를 기점으로 대야를 비롯한 위성지역구에 문화도시민으로서의 위상이 세워지는 출발선이길 바랍니다.

Q. 만약 본인이 문화도시관련 전문가라면 대야면에서 꼭 시도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A. 문화의 광의적 개념으로 전수된 가공품이나 기

술제조법도 포함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통주도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양조장이었던 카페 '추억뜨락'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 술문화의 재현도 좋구요. 특히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만들었던 우리의 전통누룩으로 맛을 내는 양조기술 등을 선보이고 싶네요. 그래서 사과꽃, 복숭아꽃 향기가 나는 술의 맛을 나누고 싶고요. 술문화와 양조의 기술은 대야의 너른 뜰에서 나오는 쌀 소비, 술 제조 체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도 맞물려 있으니까요. 발산의 오줌바위 약수터를 복원하여 피부병에 좋은 냉천을 선보이는 일, 도자기와 차 생성지를 만드는 일 등을 꿈꾸기도 합니다.

Q. 군산이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문화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생각하죠.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문화인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외형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정치민주화, 특히 정치민주화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같아요. 여전히 클래식듣기, 추상화 전시회 등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어려서부터 흔히 만나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아서라고 봐요. 옆집 마트를 들락거리는 것처럼 음악공연장, 미술장 등이 상설화되어 있어서 저절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끌려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전체 시민이 문화 민주주의자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군산시 전체 예산 중 겨우 2%대에 머물고 있는 문화예술과의 정책예산부터 바꾸고요, 시민주체의 문화를 위한 공동체가 함께 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Q. 대야5일장의 특징과 '문화란 000 이다' 라는 말을 해주신다면요.

A. 예전의 지경장이 60년대에 대야장으로 변모했는데, 서천 익산 김제 군산 등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대야 장날에 간다' 모습 그 자체가 문화가 아닐까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장을 보는 재미가 있는 곳, 6개면 할머니들이 텃밭작물을 가져와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몸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진 장터가 바로 대야오일장입니다. '문화는 마당놀이다' 라고 말하고 싶군요. 기획자, 출연자, 구경꾼 등 모든 주체가 하나의 공간 마당에서 서로 소통해야 완성된다는 의미구요 시대성과 부합하는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이 표현으로 대답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무엇인냐고 묻자 썩이 늦게 터서 이름도 그렇게 붙여졌다는 느티나무라고 말했다. 어느 마을이나 있는 느티나무, 그늘이 커서 쉬기도 좋고 계절별 단풍도 좋다는 그는 중학교 때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 본 뒤로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다.

발산초부터 학령기 성인기를 모두 지역 토박이로 살아온 그 불규칙한 정치의 삶을 떠나더라도 언제든지 농부로 살며 시를 쓰고 싶은 그는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농부로서의 농사활동,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시작(詩作)활동은 튼튼한 수레바퀴에서 균형되게 뻗어나가는 수레바퀴 살처럼 느껴졌다. 흔들림 없이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그의 언어는 인터뷰 내내 편안함을 주었고 옛날의 양조장에서 뿜어나오던 진짜 향기를 말할 줄 아는 농부시인과의 만남이었다.

걸어서 걸어서 천혜의 해상 관광공원 '고군산군도'

푸른 빛 바다 아래 군도(群島)의 향연
해양 교류의 거점, 관광지로 각광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고군산군도 해역은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곳으로 '고군산진 지도'에서 확인되듯 국제 무역항로의 기항지이자 서해안 연안 항로 거점이었다.

특히,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선화봉송고려도경'에 따르면 선유도는 사신을 맞이하던 군산정(群山亭)이 있었던 곳으로 언급된다.



무녀도 쥐똥섬



쥐똥섬을 방문할 땐 고립 방지를 위해 밀물 시간을 필히 참고해야 한다.



망주봉



은해양 교류지로 각광받은 지역

고군산군도 해역의 수중조사는 지난 2020년 문화재 발견신고 이후 수중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토기, 고려시대 상감청자 및 청자다발, 조선시대 분청사기 및 백자,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 도자기, 난파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재 및 닻돌, 운송 및 선상 저장용으로 보이는 도기, 솥돌 등 500여점의 유물이 확인됐다. 특히 솥돌로 추정되는 석재의 경우 그동안 선상용품으로 1~2점이 출수되거나, 2015년 태안 마도4호선 발굴에서 15점이 새끼줄로 묶여져 확인된 사례는 있으나, 100점이 무더기 상태로 확인된 경우는 처음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0월까지 고군산군도 해역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한다.

고군산군도의 중심, 무녀도

선유도와 신시도 사이에 위치한 고군산군도의 중심 '무녀도'. 섬의 서남쪽에 있는 산인 무녀봉(巫女峰) 앞에 장구 모양의 장구섬과 술잔 모양의 섬이 있어서, 선유도에서 남쪽으로 무녀도를 바라볼 때 마치 무당이 굿 춤을 추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 무녀도라 부른다. 무녀교차로를 내려가면 바닷길이 열려서 일명 '모세의 섬'이라고 불리는 '쥐똥섬'이, 선유도 방향으로 걸어가면 하트(♡) 모양으로 생긴 무인도 '하트섬'과 수용인원 180명 규모의 캠핑장, 돛캠핑, 편의시설과 놀이터를 갖춘 오토캠핑장이 있다.



선유도 짚라인



옥돌해수욕장과 해안가 데크



선유도 해수욕장



선유도 해수욕장과 망주봉

신선이 사랑한 섬, 선유도

선유도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한 '신선이 놀다간 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군산대학교 정문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99번 버스를 타면 종점인 선유도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국내 바다 위 최장길이를 자랑하는 짚라인 외에도 선유1구 옥돌해수욕장과 동글동글한 돌들로 유명한 선유3구의 몽돌해수욕장,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대표 자연경관인 '선유8경', 고군산군도의 풍경 구석구석을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투어, 갯벌체험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이와 함께 선유도 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는 망주봉(152m)과 나무데크 길 반대쪽 망주봉 아래로 계속 들어가면 멀지 않은 끄트머리에 코끼리 바위가 숨어 있어 선선한 날씨, 섬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사진 명소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선유봉에서 바라보는 무산십이봉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장자도로 향하는 장자교를 건너기 전, 선유2교차로를 건너 들어갈 수 있는 선유봉(112m)은 정상에서 절경인 무산십이봉을 바라볼 수 있다.

'무산십이봉(舞山十二峰)'이란 고군산의 방벽 역할을 하는 방축도와 말도 등 12개 섬의 산봉우리가 마치 투구를 쓴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과 비슷해 불린 이름으로, 선유봉에 올라 이곳을 바라보면 하나의 병풍 또는 적을 막기 위해 배치된 무사들로 보인다.

선유봉은 앞 세 개의 섬과 고깃배가 오가는 '삼도귀범(三島鬼帆)'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세 섬이 줄지어 있는 풍경이 펼쳐진다. 세 섬은 무인도로 무녀도에 속해 있으나, 선유도 앞마을을 돌아서는 어귀에서 있으며 갈매기와 물오리 등 바다새의 천국이다.

천년바위를 품은 장자도

고군산군도 한가운데 위치한 장자도는 약 268m 가량의 장자도 스카이워크를 걷다 보면 방문할 수 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의 금의환향을 기도하던 여인의 전설을 담은 천년나무가 바다를 향해 위치해 있으며, 대장도와 선유도 및 기타 군도로 연결된 풍경이 시원스럽게 보이는 위치에 전망대가 있어 사진 찍기에 제격이다. 특히 북쪽에 위치한 대장봉(142m)에 올라가면 고군산군도 63개의 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면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군도를 한 눈에 담다

특히 북쪽에 위치한 대장봉(142m)에 올라가면 고군산군도 63개의 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면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대장봉은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 경사가 다소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는 장자 할매바위 방향과 관리도가 보이는 등산로 방향을 선택해 걸을 수 있다.

약 9,000만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으로 구성된 할매바위는 장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슬픈 전설이 깃든 바위다. 장자할아버지의 글공부 내조에 전력을 다한 장자할머니가 할아버지 급제 후 마중나가던 중 할아버지 뒤 역줄을 소첩으로 오해해 몸을 돌려 버리고 서운한 마음에 바위로 변해버렸다는 내용으로, 할매바위를 보면서 사랑을 약속하면 이루어지고 배반하면 돌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가고 싶은 K-관광섬' 선정

장자도 북쪽에 위치한 말도, 명도, 방축도의 경우 최근 문체부의 '가고 싶은 K-관광섬 공모'에 선정되며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무인섬인 광대도와 유인섬인 방축도를 연결한 출렁다리는 동백숲길과 곳곳의 작은 해변 산책로와 어우러져 트레킹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리 위에서는 고군산군도의 명물인 독립문바위를 조망할 수 있다. 방축도 출렁다리와 더불어 세 섬을 잇는 인도교 조성사업이 올해 중 준공되면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자도



장자도 천년나무



장자 할매바위



방축도 출렁다리



대장봉 정상에서 장자도를 바라본 모습



예술의 혼을 담은 컬렉션 '철릭(綴翼)한복' 전시회

박정미 작가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어려서 친구들과 인형놀이 하면서 인형 옷과 친구들 옷을, 여고시절에는 배운 적 없는 미싱을 혼자 터득하여 가족과 가까운 주변인들 옷을 만들고 고쳐주는 등 남다른 손재주를 타고난 그 소녀가 어느덧 퀼트공예가이자 당대의 생활한복 전문가로 명성을 더하고 있다. 군산여고와 군장대 패션주얼리 학과를 졸업한 박정미 작가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 철릭한복 전시회를 개최(5.2~7.2), 방문객들로부터 찬사와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철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다.

철릭의 유래

고려 때 몽골에서 도입된 철릭(綴翼)은 본래 문무관들의 공복(公服)이었지만 조선 시대 들어 사대부들의 일상적 외출복으로도 입을 만큼 대중화 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융복 내지 무관들의 평상복으로 완전히 정착하였다. 철릭의 색깔로 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조선시대 후기부터이다. 당상관이 남색, 당하관이 청현색, 홍색으로 이러한 철릭들은 옛 사극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퀼트공예가에서 철릭 디자이너로

일찍이 퀼트공예에 천착하던 박 작가가 철릭에 빠져든 것은 군장대 졸업 후인 2016년도이다. 당시 퀼트 식상함에 젖어있던 그녀는 군장대 재학 시절 전주의 '리슬'디자이너로부터 생활 한복 강의를 듣

고 매료되었는데 리슬 디자이너는 BTS(방탄소년단) 단원에게 자신의 디자인 옷 선물을 해주었을 정도로 명성을 날렸다. 이를 계기로 생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던 중 어느 지인이 철릭에 대해 소개를 해줘 본격적으로 배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성황리 전시

그녀가 제작하는 모든 철릭은 100% 면(綿)원단에 보다 편리함이 적용된 디자인으로 멋과 함께 품위가 담겨 있다. 본디 눈썰미가 뛰어난데다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제는 치수를 재지 않고도 눈짐작만으로 정확한 재단이 가능할 정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대역사박물관 전시는 각각 색상과 디자인이 다른 약 20여점의 철릭이 전시되고 있는데 30년 퀼트공예 장인인 박 작가의 손에서 한땀 한땀



현대적 감각에 맞게 다양한 패턴으로 탄생한 것들이다.

이러한 철릭은 과거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무관들의 관복을 현대적 감각과 색상으로 재탄생시킨 디자인으로 편안하면서도 착용감이 뛰어난 생활한복으로서 손 주름 및 바이오 워싱(Bio washing) 처리된 면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 기존 생활한복보다 착용감이 우수하며 특히 다트가 들어가 있어 슬림하게 핏 된 생활한복 스타일의 겹쳐 입는 랩 형태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다.

박 작가의 철릭 작품들은 문인화 이은숙 작가의 디자인과 콜라보를 이뤄 더욱 멋스러움이 드러난다. 박 작가는 그림 디자인 하나하나에도 사용자의 취향을 꿰뚫어 더욱 우아함이 담긴 작품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입을 수 있는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단순한 생활한복 이상의 우리 민족 고유의 얼과 멋이 깃든 결혼식 예복으로도 발전해 나갈 기대하고 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된 아름다운 철릭 작품들을 보면서 무척 신기해하기도 하고 재질과 가격을 문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인다. 또한 직접 입어봄으로서 구매 결정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전시 규정상 허락되지 않아 전시장에서 판매는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도 있다. 따라서 박 작가는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여 차후에 개인적으로 적당한 전시장을 임대, 본격적으로 판매 전시회를 가져볼 생각이다.





작가 약력

<학력>

군산여고 졸업
군장대학교 패션주얼리학과 졸업

<수상>

2016 군산시 관광상품 공모전 동상
전국 한지 의상 경진대회 입선
2015 한국니트산업 한지 패션부문
공모전 기업상
2006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입선
2005 전라북도 공예품 경진대회 특선
2003 대한민국 문화관광상품대전 입선
무주 전통공예 한국대전 경진대회 은상

2002 청주 공예문화상품대전 입선
무주 전통공예 한국대전 경진대회 입선
전라북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선
2001 문화관광부 전국공예공모대전 최우수상

<전시>

2019.10 군산은파호수 철리한복 패션쇼
2018. 9 철리한복 박정미 패션쇼
2018. 6 서울A/T센터 철리한복
2018. 5 철리한복 박정미 개인전
2008~2016 (사)퀼트연합 회원전
2016 공예품 판매장 '퀼트 민화로 말하다'
별똥 회원전
2015 군장대학교 패션주얼리학과 '파워'전
2009~2012 (사)한국미술협회전

공방 '꼬맴'/'별똥'

박 작가가 운영하는 두 곳의 공방 중 '꼬맴'은 퀼트와 철리한복을, '별똥'은 공예품 전시 판매장으로 금동 옛 군여상 오르막길 초입에 있다. 별똥에서는 일부 철리 한복 디자인과 전시 판매도 이뤄지며 박 작가의 솜씨가 담긴 아기자기하면서도 다양한 공예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주말 군산을 찾은 외지 관광객 들은 별똥의 작품들을 보며 서울 인사동보다 더 예쁘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준다는데 이러한 칭찬은 박 작가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응원이 되고 있다.

작가의 말 -박정미-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 고장 군산에서 '철리'의 숭고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담아낸 작품들을 소개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공예와 함께 하며 자연을 닮은 철리한복의 아름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날들을 꿈꿨습니다. 한땀 한땀 정성과 시간을 들여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소담스런 작품 하나하나에 타고난 듯 담긴 아름다운 작품들을 통해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되찾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똥'
군산시 금동83-1
(철리한복연구소 상설매장1호)
HP:010-6833-2098





걸어서 걸어서 초록 빛깔 가득한 군산의 5월

남녀노소 신나게 노닐 수 있는 '청보리밭' 가득
미성동 국제문화마을·옥구저수지·옥녀교차로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많은 사람들이 '군산'하면 푸른 바다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5월의 군산은 초록 빛 청보리밭의 풍경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군산은 흰찰쌀보리를 대표 특산품으로 내세우는 만큼 많은 보리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를 증명하듯 미성동 일대 서군산을 둘러 보면 보리가 눈 앞에 가득 펼쳐지는 풍경을 사진첩에 담아낼 수 있다.



노란 유채밭을 신나게 노니는 아이들

보리의 향연,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해마다 5월이 되면 열리는 군산공당보리축제는 따뜻한 날씨를 맞아 자라난 푸르른 보리밭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군산은 맛있고 소화 잘 되는 흰찰쌀보리의 효능을 응용한 비빔밥, 빵, 막걸리, 수제맥주 등 가공품을 제조하며 '보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겨우내 공공 얼어붙은 눈 속에서도 어기차게 살아난 보리가 봄 바람을 맞아 논밭에 푸르게 펼쳐진 모습이 장관이다. 공당보리축제가 열리는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들은 주민들이 심은 보리와 유채, 메밀, 꽃양귀비, 자운영, 해바라기 등이 준비해 볼거리를 더한다.

탁 트인 청보리밭, 옥녀교차로

내초동에 위치한 옥녀교차로는 드넓은 청보리밭 가운데 메타세쿼이아 군락이 있어 이색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한국관광공사 추천 '5월 여행지'와 2022 전북도 시군 명소를 선정한 '네컷 사진', SNS, 방송을 통해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는 이곳은 주위에 높은 건물이 없이 탁 트인 시야를 보여 준다. 봄철엔 청보리밭, 겨울철엔 눈 덮인 설경 등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옥구저수지

원래 만경강 연안은 간석지(하천에 의해 하구에 운반된 점토, 모래 등 미립물질이 해수의 운반 작용으로 그 인접 해안에 퇴적된 지형)였다. 그러나 1923년 옥구저수지가 축조되고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며 농경지로 변모했다.

전북 유일 항구도시인 군산은 일제강점기 시절 평야에서 수확한 쌀을 항구로 수탈당했으며, 이 당시 옥구 평야를 비롯한 드넓은 논이 일본인 지주에게 할애되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는 이곳 옥구저수지를 중심으로 남쪽 850정보는 한국인에게 소작을 주고, 북쪽 1,000정보는 일본인 이주자에게 분배했다. 한국인은 가구당 5마지기, 소작으로 '옥구농장'을, 일본인 이주자는 가구당 60마지기 토지를 분배해 '불이농촌'을 형성했다. 100여년이 지난 현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수지 둘레 길을 거닐 수 있는 산책로로 인기를 얻고 있으니, 그만큼 시간이 훌쩍 흘렀다는 방증이 아닐까./김혜진 기자



옥녀교차로(사진=한국관광공사)



하계 팽나무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들



노거수(오래되고 큰 나무)를 통해 보는 군산이야기

스물네 번째 - 자귀나무이야기

글 | 김태휘(스코트라 건설레저본부장)
macwon@naver.com



군산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1915년 준공된 제1수원지는 현재 월명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하였고 소룡동에 위치한다.

여름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이맘때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변이나 산기슭에서 고운 실타래를 풀어 피운 듯한 자귀나무의 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연분홍색 꽃이 시원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꽃의 색깔이 아니라 아마도 그 꽃의 모양새가 특이해서인데요. 초록빛 잎새를 무성히 매달고 사방으로 드리운 가지며 그 끝에 하늘을 향해 매달린 꽃송이는 야성의 싱그러움을 주면서도 개성 있는 조형미로 주변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귀나무의 잎은 아까시나무 잎처럼 작은 잎들이 모여 하나의 가지를 만들고 이들이 다시 줄기에 복엽으로 달립니다. 대부분의 복엽은 작은 잎들이 둘씩 마주나고 맨 끝에 잎이 하나 남게 마련인데, 자귀나무의 작은 잎은 짝수여서 밤이 되어 잎이 닫힐 때 홀로 남는 잎이 없습니다. 만약 짝없이 홀로 남는 잎이 있었다면 금실 좋은 합훈수라는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귀나무는 밤이 되면 잎이 움츠러들어 두 잎을 맞대고 밤을 지새우는데, 이 특성 때문에 합환목, 합훈수, 야합수, 유정수 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며 예로부터 신혼부부의 창가에 이 나무를 심어 부부의 금실이 좋기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사실 잎이 마주 움츠러드는 것은 작은 잎자루 아래쪽에 있는 세포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꽃꽂함을 유지하다가 자귀(온도변화, 외부충격 등)를 받으면 수분이 빠져나가 팽압이 감소하면서 잎이 닫히는 현상인데, 그래서인지 옛사람들은 이 나무를 애정목이라 하여 집 마당에 심으면 부부의 애정이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소룡동은 군산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바다와 접해있는 장소로 과거에 섬이었던 오식도동과 비응도동을 포함합니다. 오식도(箕箒島)란 섬의 이름은 통소용 대나무가 많아 풍류객들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전라도의 시주곡을 배에 싣고 서울로 보내는 곳으로, 어느날 이 시주곡을 실은 배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에 모여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배는 모두 침몰되고 선원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까마귀떼가 덮고 있었답니다. 이를 만경골 원님이 중앙의 시주곡 독촉에 배는 간 곳 없고 시체위에 까마귀떼만 있을 뿐이라는 상소문을 올려 당시 고을 원님들의 입장을 모면케 했다는 것에서 이곳을 오시도(烏屍島)라 부르다가 일제강점기때 대나무가 많고 먹을 것도 많다고하여 대나무 오자로 고쳐서 오늘의 오식도라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응도(飛應島)는 지형의 생김새가 마치 날아가는 매와 같아하여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옛날의 비응도에 대한 내력을 살펴보면 이 섬은 원래 무인도였으나 약 400년 전 정씨라는 어부가 군산내항 부근에 배를 메어놓고 잠을 자는데 꿈에 자칭 도사라고 하는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두 명의 신선을 실어다 줄 것을 요구받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는 군산내항을 빠져나가 비응도 부근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찬 돌풍이 불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비응도로 대피를 했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신선 두 명은 온데간데 없고 배 안에서 커다랗고 누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섬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고 정씨는 그 배를 매어두고 섬으로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명호수 데크길에서 만난 자귀나무



자귀나무는 꽃도 아름답지만 잎 또한 예술적입니다.

사실 2년 전부터 노거수를 통해 군산을 들여다보는 칼럼을 쓰기 시작한 후로 군산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노거수는 물론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자격이 있는 나무들도 많이 만나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산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나무들과, 계절에 맞는 나무들을 지역의 문화재와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은 군산에서는 보기 드문 자귀나무입니다. 하루 종일 찾아다녀도 정말 보기가 힘들더군요. 수줍은 아가씨처럼 분명 어딘가에서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쉽사리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월명호수 산책길에 아기 자귀나무를 겨우 봤으니까요. 현재는 노거수라는 제목과 어울리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월명호수의 멋진 주인공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자귀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런 꽃의 나무, 자귀나무

자귀나무의 잎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만큼 아름답지만, 이 나무의 꽃 역시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분홍색은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보니 자귀나무는 잎과 꽃 모두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꽃은 아주 가느다란 붓처럼 생겨 마치 여자들이 화장할 때 사용하는 도구 같습니다. 여름꽃

이 드문 시기에 자귀나무의 꽃을 보는 순간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데요. 나무 가운데로 들어가 길게 드리운 가지 사이로 자귀나무의 꽃을 보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할지도 모릅니다. 한여름에 연분홍색의 강렬한 꽃을 피우는 자귀나무는 얼핏 보면 나뭇가지 위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한복 치마에 수놓은 공작새 같은 단아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꽃의 질감이 비단같이 부드럽기 때문에 영어 이름 또한 '실크 트리(Silk tre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귀나무의 잎과 꽃을 사랑하지만, 실제 이 나무의 정체성은 열매입니다. 이 나무가 콩과 식물이기 때문인데요. 자귀나무의 열매는 자세히 보면 5~6개의 씨를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콩과에 속하는 아까시나무나 박태기나무의 열매와 아주 흡사합니다. 납작하고 콩깍지마냥 긴 꼬투리 모양을 하고 있는 열매는 익으면 갈색으로 변하며 꼬투리가 갈라져 씨앗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꼬투리는 금새 떨어지지 않고 겨울바람에 서로 부딪혀 달그락거립니다. 좀 어이없긴 하지만 이 소리가 시끄러워 여설목(女舌木)이라고 불려 그 소리의 시끄러움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귀나무는 중국 원산이지만 목포 유달산 및 제주도



자귀나무의 화려한 꽃



바람이 불면 콩꼬투리 모양의 열매가 달그락거려 여설목이라 불리기도 하는 자귀나무의 열매

에서 자생하는 왕자귀나무(*Albizia coreana* Nakai)는 우리나라 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귀나무의 학명에는 중국 원산을 나타내는 표기가 없지만, 일본의 식물학자 나카이가 붙인 왕자귀나무의 학명에는 한국 원산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귀나무는 자귀나무와 달리 화관(花冠)이 흰색이거나 연노란색이어서 왕자귀나무의 꽃은 자귀나무의 꽃과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전남 목포 부흥산에서 국내 최고 수령의 왕자귀나무가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부흥산 왕자귀나무는 높이 8m, 밑동 직경 2m45cm 규모입니다. 목포는 국내 최대 왕자귀나무 서식지역으로 주로 발두령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필자는 남부지방의 정원에 조경을 하러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 나무를 설계해 드립니다. 한편 자귀나무는 농사꾼들에게도 친숙한 나무입니다.



목포 부흥산 왕자귀나무



꽃이 하얀색인 왕자귀나무

마른 가지에 움이 트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이제 늦서리 걱정을 덜고 서둘러 곡식을 파종합니다. 싱그럽게 커가던 자귀나무의 첫 번째 꽃이 필 무렵이면 밭에 팔을 파종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귀나무를 집안에 심어두면 꽃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기에 취해 여자들이 바

람난다고 하여 집안에 심지 못하게 했다는데요. 마치 명자나무를 집안에 심게 되면 어린 딸이 그 모습에 취해 바람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귀나무를 뜰에 심으면 미움이 사라진다고 믿어서 친구의 노여움을 풀고자 할 때는 잎을 따서 보내어 풀곤 하였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자귀나무의 줄기로 절굿공이를 만들어 부엌에서 쓰면 집안이 화목하여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명한 아내는 단옷날 자귀나무꽃을 따서 말려두었다가 남편의 심기가 좋지 않을 때 조금씩 꺼내 술에 넣어주곤 했다고 하는데 울적한 심사에 부인이 건네주는 향긋한 술잔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이 제철이니 한 번 시도해 보시길요. 서양에서도 비단나무(Silk tree)라 부르는 것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이미지의 나무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격 까칠한 예민한 나무, 자귀나무

농업사회에서는 예민한 아이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노동으로 집안을 꾸려야 하는 소농의 경우 어머니는 아이가 보이면 노동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농촌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형제와 친지들에게 안겨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일 성격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는 성격 나쁜 존재로 악평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농의 자식들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칭찬받았습니다. 예민하게 이것저것 가리거나 따지면 핀잔받기 일쑤였죠. 식물도 사람처럼 아주 예민한 존재가 있습니다. 콩과의 자귀나무가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거나 밤이 되면 잎을 오므립니다. 자귀나무의 이런 모습이 이 나무의 한자 이름을 낳았는데요. 자귀나무의 한자 이름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합훈수(合昏樹)'입니다. 이는 어두울 때 합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의 다른 이름인 '야합수(夜合樹)'도 같은 뜻입니다. 자귀나무의 이런 모습은 다른 나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필자는 자귀나무의 독특한 모습을 무척 좋아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어두우면 잎을 오므리는 자귀나무는 배려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자귀나무가 잎을 오므리는 것은 바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어두워서 잎을 오므리는 것은 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귀나무의 이러한 모습을 기쁨이라 생각해서 '합환수(合歡樹)'라고도 불렀습니다.

잎과 잎을 마주하면서 자는 자귀나무의 모습을 기쁨으



밤이 되어 잎을 오므린 자귀나무



나무를 다듬는 도구인 자귀(짜구)

로 표현한 것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속내를 드러내는 행위는 곧 정(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귀나무를 정 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유정수(有情樹)'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정 없는 사람을 '무정한 놈'이라 비난하는 것처럼 정은 한국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그렇다고 밤에 잎을 마주하지 않는 나무를 '무정한 나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정은 속내를 드러내는 행위지만, 속내를 드러내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죠. 자귀나무의 한자 이름은 이 나무의 잎을 강조한 것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푸른 치마를 의미하는 '청상(靑裳)'이라 불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나무를 '비단나무(silk tree)'라 부른 것도 손으로 이 나무의 잎을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귀나무의 이러한 특징을 사랑한 나머지 집 뜰에 즐겨 심었으며, 집 뜰에 자귀나무를 심은 것은 부부의 화목을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환목(合歡木)이라 하고, 그 꽃은 합환화(合歡花)라 말하는가 봅니다. 이 합환화는 술을 담갔다가, 전통 혼례를 치르고 난 신랑 신부의 초야에 돌이 마시게 되는 합환주(合歡酒)의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귀나무는 울타리 안에 심게 되면 가족은 물론이고 부부간의 애정을 돈독히 해준다고 알려진 나무입니다. 지금이 자귀나무가 빨강게 무지개 같은 꽃을 피울 때인데요.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꽃이 지기 시작하면 '장마의 끝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만큼 시기적으로 장마와 개화 시기가 잘 일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름의 유래를 가진 나무, 자귀나무

옛날 나무를 다듬는 도구인 자귀(짜구)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귀나무는 이 자귀의 손잡이(자꿇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또, 소가 잘 먹는다고 소쌔나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의 유래로는 자는 시간을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여 자귀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말 자귀의 어원은 알 수 없으나, 밤이 깊어지면서 자귀나무 잎은 서로 마주 붙는데, 부부의 만남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짜'와 분명 잇달아 보입니다. 짜에서 비롯하는 짜나무 > 짜기나무 > 자귀나무로의 말의 변천입니다. 또, 꽃이 부채 같다 하여 부채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귀나무의 잎은 낮이 되면 열리고, 밤이 되면 닫히는데요. 이것을 '수면운동'이라고 합니다. 수면운동은 몇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데요. 자극에 의해 잎이 접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모사의 경우는 잎자루에 발달 된 세포 속에 수분이 많아지면 부피가 늘어나고 팽창하는 이른바 팽압이라고 하는 압력에 의해 잎이 쪽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접촉이나 소리의 자극이 있으면 수분을 빼고 팽압을 내려 잎을 접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로부터 잎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귀나무의 수면운동은 온도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합니다. 낮에는 햇빛으로부터 양분을 얻어야 하므로 최대한 잎을 펼쳐 놓아야 하지만 밤이 되



자귀나무 껍질인 합환피

면 잎은 양분을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되죠. 더욱이 증발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잎을 움츠려야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기에 이런 수면운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꽃은 해 질 무렵 활짝 피는데, 향기가 짙고 개화기간도 한 달 정도로 길어서 꽃을 찾는 사람들은 한 번쯤 카메라에 담아 봄직합니다.

다양한 약재로 사용되는 나무, 자귀나무

한방에서는 자귀나무의 잎과 줄기에 독이 있어 약용으로 쓰진 않으나 껍질을 벗겨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 자귀나무 껍질은 합환피(合歡皮)라고 하여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말린 것을 물에 넣고 달여서 약용합니다. 약재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 시키며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멎게 합니다. 그러나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약재입니다. 꽃봉오리와 꽃(합환화, 合歡花), 줄기껍질(합환피, 合歡皮), 씨앗은 여름~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씹습니다. 가끔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말린 것을 물에 넣고 달여서 마십니다. 또, 봄이나 가을철에 껍질을 벗겨 흐르는 물에 5일쯤 담가 두었다가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물에 담그면 대개 약성이 약해지거나 순해 지지만

자귀나무 껍질은 반대로 약성이 더 강해집니다. 한편 대개의 약초는 그늘에서 말려야 약성이 제대로 보존되지만 자귀나무는 햇볕에 말려야 약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인지 자귀나무 껍질은 물에 달여 먹어도 좋고 가루 내어 먹어도 좋습니다. 껍질을 부드럽게 가루 내어 참기름에 개어서 아픈 부위에 붙이면 신기하게 잘 낫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잘 낫지 않는 데에도 자귀나무 껍질 가루는 좋습니다. 자귀나무 잎을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하는데 늘 먹으면 부부 사이의 금실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 나무를 애정목(愛情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나무, 자귀나무

우리나라에서 자귀나무는 지리적으로 개마고원 이남에 분포하고, 주로 남부지방의 난온대 지역에서 야생합니다. 농촌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숲 가장자리와 같이 아늑하면서도 따듯한 양지바른 곳에 자생합니다. 자귀나무는 조금이라도 서늘한 느낌이 있는 숲속에서는 잘 살지 않으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딴곳 깊은 산속에서도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 잘 보존된 원시 자연보다는 사람을 좋아하는 나무란 뜻입니다. 꽃 피는 계절에 자귀나무 밑에 주차하면 진득진득한 액체를 뒤집어쓰게 되는데, 마치 회화나무처럼 자귀나무의 밀원과 곤충 배설물 때문입니다. 공원 벤치나 주차장에 자귀나무를 심으면 개념 없는 조경이라고 지적받는 이유입니다.

자귀나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ilk tree입니다. 비단처럼 아름다운 꽃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졌지만 자귀나무를 심어 낭패를 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하



자귀나무의 수형과 꽃핀 모습



자귀나무의 수형과 꽃핀 모습

와이입니다. 하와이는 산천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자귀나무를 수입하였는데 오히려 자귀나무가 창궐하자 이 나무를 생태교란 종류로 정하여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1973년경 수산청에서 자원조성용으로 들여 온 배스가 우리 토착어종을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귀나무는 습지에 강한 나무입니다. 자귀나무는 주변에 습지가 있으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데요. 생물학적으로는 미모사와 아카시나무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자귀나무는 살리실 성분이 많아 수양버들과 함께 진통제 원료로 쓰입니다. 또 자귀나무 목재는 중요한 건축자재로 인기가 많으며 잎이 사료로도 쓰이는 다용도 나무입니다. 6월을 넘기면서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미 열매를 맺었거나 결실중에 있죠. 그러나 아직도 몇몇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귀나무입니다. 숲에서나 길가에서 우연히 볼 수 있는 자귀나무는 꽃 피는 모습이 하도 특이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귀나무와 관련한 속담과 설화

일반적으로 자귀나무는 부부 금실을 위해 정원에 심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자귀나무를 '자구냥' 혹은 '잡구냥'이라 하여 집안에 심지 않는 금기목으로 여겨 심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자랄 때 그 나무 그늘에 누웠다가 학질에 잘 걸렸다고 합니다. 이는 모기들이 유독 자귀나무 아래에서 많이 뛰는데 아마도 좀 더 습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여 봅니다.

지진이나 화산이 터지기 전 동물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동물들은 인간에 비해 자연 재앙에 더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평소에도 지진이 잦은 만큼 지진 관련 설화 등이 많은데, 이 중 자귀나무에 관련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자귀나무의 생체 전위를 관찰하던 기록 그래프에 이상이 나타났고 38시간 뒤, 동경만(東京灣) 남부에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네요.

자귀나무와 관련한 정설과 속담이 다양하게 있어 소개합니다.

- 자귀나무를 집 주위에 심으면 가정에 불화가 없어지고 늘 화평해진다.
- 자귀나무는 딸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딸과 손(마손)가 땅한다고 믿음)
- 자귀나무가 잎이 뜰면 과중한다.
- 자귀나무의 첫 꽃이 피면 딸을 과중한다.
- 자귀나무꽃이 만발하면 딸 풍년이다
- 자귀나무 잎이 벌어지면 딸고 단하면 바가 온다
- 자귀나무 잎은 습도가 낮으면 벌어지고 습도가 높으면 닫히는 경향이 있다.
- 이삭 떨어 때 비 한 방울은 눈물 한 방울이다. (벼 이삭이 떨어 때는 벼꽃이 피어 수정하는 시기므로 비바람이 몹시 해롭다는 말)

女娥英皇



자귀나무의 수형과 꽃핀 모습

다음은 자귀나무에 관한 설화입니다.

“옛날에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많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자고 졸랐는데요. 어느 날 그 청년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예쁜 꽃이 만발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꽃을 구경하는데, 한 어여쁜 처자가 나왔습니다. 그 처자에게 한눈에 반한 청년은 그녀에게 청혼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시기를 하였는지, 청년이 근처 주막의 주모에게 홀려서 집에 들어오질 않자, 그녀는 산신령께 자기 집의 꽃을 꺾어놓고 백일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나타나 그 꽃을 집안에 모두 꺾어두라 하여 꺾어두었더니, 집에 돌아온 청년이 그것을 보고, 처녀에게 청혼하던 때를 떠올려 잘못을 뉘우쳐 부부가 화합했다고 합니다. 이 꽃나무가 자귀나무입니다.”

자귀나무를 귀신나무로 오해하고 게신 분들이 많습니다. 밤중에 잎이 접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두고 ‘귀신이 와서 자는 것 같다’고 하여 자귀나무라고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좌귀(佐歸, 도울

좌(佐) 돌아올 귀(歸)에서 자귀나무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잎이 밤이 되면 서로 돌아와 마주보며 잠을 잔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식물은 이처럼 인간이 만든 설화가 아주 많습니다. 식물과 관련한 설화는 대부분 슬픈 내용인데요. 식물 관련 설화가 대부분 슬픈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란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이겠죠. 자귀나무에도 슬픈 설화가 전합니다. 자귀나무의 설화에는 순임금의 두 비(妃)였던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등장합니다. 요임금은 농사를 짓던 순임금에게 자신의 권좌와 두 딸까지 주었습니다. 요임금의 권좌 이양은 이른바 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는 선양(禪讓)의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요임금의 권력 이양은 아리따운 두 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요순시대의 중국이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치수(治水)였는데요. 특히 수향(水鄉)으로 불리는 양자강 중·하류는 넘치는 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그곳 사람들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순임금은 남쪽의 치수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두 아내를 남겨 둔 채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남쪽의 순행(巡幸)은 목숨을 던져야만 했을 정도였는데요. 길고 긴 여정은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건조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습한 남쪽은 죽음을 부르기 십상이었습니다. 결국 순임금도 순행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임금의 두 아내는 남편이 금방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영원히 불귀의 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문밖에 서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온다는 남편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황과 여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남편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도착한 두 아내가 처음 접한 소식은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두 여자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두 여자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여자는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두 여자가 자결하면서 흘린 피는 소강(瀟江)과 상강(湘江)의 무늬 대나무, 즉 반죽(斑竹)의 설화를 낳았고, 두 여자의 영혼은 열녀의 상징이라 합니다. 사람들



두견새

이 자귀나무를 남편을 따라 죽은 아황과 여영의 순애(殉愛)와 연결한 것은 이 나무의 특징을 사랑의 상징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노거수 나무를 찾아 다니다 만난 시골 할머니께서 자귀나무를 가리키며 짜구대 나무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가 나뭇잎을 좋아해서 짜구 나뭇잎을 먹는다고 해서 짜구대 나무라고 한다는 말씀도 재미있었는데요. 자귀의 본뜻은 두견새를 ‘자규새’라고 합니다. 봄밤에 밤새 울어대는 두견새의 서러운 한탄 울음마다 피 한방울이 맺히는데, 자규새의 한 맺힌 피 한방울이 꽃으로 피어나면 진달래꽃이 되고 나무로 피어나면 자귀나무꽃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할 때는 자귀나무 꽃잎을 베개 속에 넣고 자면 없던 금실도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속주머니에 자귀 꽃잎을 넣고 다니면 바람난 남편이 돌아오고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귀 꽃을 선물하여 냉큼 받으면 사랑이 이뤄진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은 나무 한 그루에도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복사나무는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집안에 심으면 좋지 않고 담장에 짙레꽃을 올리면 호상(虎傷)이 염려되고 자귀나무를 심으면 부부의 애정이 더해지며 석류나무를 심으면 자손이 번창한다고 믿었습니다. 조선 개국을 찬양한 용비어천가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일 새 꽃 좋고 열매 많나’라는 표현이 있듯이 하늘로 솟은 나무는 기상을 상징했고 열매는 다산을 뜻했습니다. 민담이나 설화에도 나무의 신성함과 풍요에 대해 묘사한 이야기가 많은데, 신(神)이 내린 나무인 신단수가 바로 서낭당 나무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여인이 된 웅녀도 환웅이 내

려온 태백산 신단수에 ‘아이를 달라’고 기원해 단군왕검을 낳은 것이겠죠. 이렇듯 우리 민족은 나무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환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자귀나무는 우중충한 날씨가 되풀이되는 시기인 장마철에 화려하고 밝은 꽃을 활짝 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하게 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는 자귀나무의 꽃을 카메라에 담아 보는 것도 기분전환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듯합니다. 나무를 통해 풍요와 출산을 기원하던 염원처럼 삶의 동반자로 나무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자연보호는 물론 나무처럼 깨끗하고 강인한 삶의 문화가 자리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름이 깊어갈 때 야자수 같은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주는 자귀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내 안에 맺혀있는 상처를 정화하고 내가 남에게 주었던 아픔을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태희
조경가, 건축가
5대 궁궐 및 왕릉 해설사
역사·조경생태분야 전문가
2021꽃심·전주정원문화박람회 자문위원
“표석을 따라 서울을 거닐다” 등
4권의 표석씨리즈 출간

방생을 위한 낚시

오래전의 일이다.

석탄일이 가까워지는 시기, 남한강 변에 가면 자라나 잉어 가물치 등을 산채로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다.

대야에 담긴 물고기를 옆에는 “방생하세요”라는 표식이 있었고, 가끔 어떤 이들이 한 마리씩 사 들고, 바로 장사꾼 옆의 강변에서 그 물고기를 방생한 후 합장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다.

방생이라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야 하니 누군가는 잡고 그 고기는 돈에 팔리고 다시 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물고기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위해 낚시에 걸리고, 낚시꾼은 자비를 베푸는 데 도우려고 물고기를 잡는다. 낚시꾼은 돈을 벌며 만족하고, 중생은 방생의 자비를 베풀어 만족한다. 그렇게 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느 사람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물고기의 처지에서 보면 방생이라는 이름으로 자비를 베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까?

교회에서는 연말은 물론이고, 수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선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교회로써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렇게 구체화하는 일이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는 그래야 한다.

선물 꾸러미와 음식을 들고 나누면서 사진을 찍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면 안 되니까” 요란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온 세상에 다 알린다. 물론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진정한 예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더 많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잊거나 모르는 일이 있다.

교회가 도와야 할 그 많은 가난한 사람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과거 중세시대 수도원 주변에는 꼭 보육원이 있었다고 한다.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수도원에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모아 보살피는 선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아이들은 사제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머니들은 누구였을까? 수도원에 있는 수녀들이었다고 일부 학자들은 말한다.

결혼하지 않는 사제와 수녀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라고 수도원의 사제와 수녀들은 마치 갈 곳 없는 고아들을 보살피는 자비로운 모습을 연출했다는 말이다. 물론 그 시절의 모든 보육원이 다 그런 형편이었다고 일반화하지는 않겠다.

돕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기득권과 손잡고 만들어 내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은 아닐까?

내가 돈 몇 푼 쥐여 주며 생색내는 저들은 나 때문에 생겨난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는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남대진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보험 가입은 正道 영업과 노력하는 보험인에게

내가 매월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는 보험이, 내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믿음만큼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보험 가입에 있어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인과 차 한잔을 하는 시간, 제게 질문을 합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보험인이 의료 실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보험사는 모르니 그냥 가입해도 된다고 했는데, 과연 맞는 말인지, 직업 역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가 없는 직업으로 바꿔 가입해도 괜찮다며 권유한다면...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이렇듯 기본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보험인이라면 적어도 보험에 관한 인연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항은 향후 보험금 지급에 난항을 겪게 만들고, 혼선과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책임의 소지는 가입한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인은 소비자에게 들었던 알릴 의무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제 보험을 시작 한지 겨우 6개월 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이런 무모한 안내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내 대형 보험사 교육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품 판매에만 모든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사(보험사) 지점장들도 한숨 쉬며 현장에서 정도 영업 보다 판매에만 몰입하는 대표들과 보험인들에 대해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지사장들 또한 제대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상이 들어왔음에도 타인을 탓하기 바쁜 현실이 안타깝다는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正道의 길을 걸으며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 하는 보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적에 급급해 변칙적인 안내를 유도하는 보험인은 현장에 성실히 영업하는 많은 분들까지 이미지 손상과 불신을 안겨주게 됩니다.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더라”에 따라 보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인을 신뢰하고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 한 것이지만, 그 보다 앞서 정확한 내용을 내게 질문 했는지, 또한 나는 제대로 알리고 계약했는지, 그리고 알려준 사항이 제대로 기재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신이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보상과 보장을 위해 진행된 과정이 정확 했는지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항인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녀가 기명 피보험자(차주)로 되어있는 차를 부친이 운행을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험 요소를 갖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요, 책임(의무)보험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보험인과 소비자들은 어차피 보상을 못 받으니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동차 보험 담당자가 전문가 인지 비전문가 인지 확인이 가능해 집니다. 전문가는 절대로 책임(의무)보험만 가입 시키지 않습니다. 종합 보험으로 운전자와 동승하는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자가 채무 관계로 문제가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책임에 대한 금전적 구상이 차주에게 갈 수 있는 소지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사고 처리를 하다 보면 의외로 무면허와 책임(의무)보험만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 교통과 자동차 배상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가족에게 큰 짐을 안겨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 늦은 저녁, 지인의 자녀에게 가벼운 차대차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보험 상승효과가 유추되는 상황에서 사고 점수를 줄일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해 가입시킨 보험인의 사고 처리와 자차 처리 안내였습니다. 0.5점 사고로 할증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결국 1점 사고 처리가 되어 보험료 상승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 할증을 계산해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함을 알려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 알게 된 운전자는 왜 자동차 보험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처리 과정을 소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했다면 씩씩함을 감추지 못 했습니다.

전문가인 보험인은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 줄여 주지만, 그렇지 않은 보험인은 자신의 이익에 소비자를 노출 시킵니다.

찾아 보세요. 진솔한 보험인을 만나면 내 미래의 위험에서 안전할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들어 달라고, 마감인데 도와 달라고, 친하니까 하나 해 주라는 보험인이 제안하는 것은 보험이 아닙니다. 열심히 납입 했지만, 돈만 내고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막연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원금융판매(주) 군산중앙지사
상담 : 대표 박남혜 Mobil : 010-9538-8953
보험 보상 문의 : A.M 10:30 ~ P.M 5:00
<문자 먼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 달 기획활동 “청소년에게 행복을 묻다.”



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원영) 소속 군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맘껏누리 이하 맘껏누리는 5월 26일(금) 군산 수송동 맘껏광장에서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행복 인식에 대해 조사하는 기획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맘껏누리는 맘껏광장에서 청소년들에게 현재 행복한지를 묻고 행복한 이유와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했다.

약 100여명이 청소년이 자신의 행복에 대한 인식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80명의 청소년이 현재 행복하다고 답변했으며, 20명이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중 80명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응답을 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선택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친구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답변했으며,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기획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한 맘껏누리 부위원장 박봄(13) 청소년은 “준비과정은 어려웠지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줘 뿌듯했다.”며, “친구들의 다양한 행복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원영 관장은 “조사 내용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학업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며 “군산청소년수련관은 맘껏누리와 함께 가족과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학업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과학기술 부문 수상 쾌거



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원영) 소속 'KGYC 다사랑' 동아리 손주원 청소년이 군산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과학기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손주원(군산남중 3학년) 청소년은 'KGYC 다사랑' 동아리의 부회장으로 로보코딩 관련 뛰어난 창의성과 재능을 발

휘해 2021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FIRST LEGO League Challenge, 세종자원 순환축제 등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손주원 청소년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과의 다양한 시도가 더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과 연구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고, 뿌듯하며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다양한 연구를 펼치고 싶다.”고 전했다.

이원영 관장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창의융합 활동을 기획하고, 다양한 로봇과 코딩 연구를 꾸준히 펼쳐온 결과로서 수상의 의미가 더 크다.”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창의적 연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군산시가 청소년의 달을 맞아 7개 분야(봉사, 효행, 근로,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참여 부문)에서 관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산시 청소년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억은 또 다른 아픔을 막는 시작 - 세월호 9주기 추모 활동



“이 아이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태어났어요. 벌써 9살이네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 태어났던 아이가 오늘 세월호 기억부스에 찾아왔습니다.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세월호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 책임을 다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를 위해 달그락 청소년들은 매년 추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주기가 되는 2023년, 지금의 청소년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을 “한글을 배우는 유치원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서 기억이 없기도 하고, 막연하게 “무서웠던 기억”, “슬펐던 기억” 정도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달그락 청소년 연합회 대표자회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먼저 세월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추모활동에 동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자들이 모

이는 회의 시간과 각 자치기구 모임 시간을 활용해 우리에게 세월호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세월호 참사의 과정과 진상규명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그락 회장인 조민지 청소년은 청소년들과 세월호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후 세월호 참사과정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서 많은 기억이 없지만, 청소년이 된 이후에 달그락에서 활동하며 세월호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여러 부분에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F5 미디어 자치기구의 이규빈 대표는 “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찍었던 영상을 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도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억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Make Dream의 김도담 대표는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게 팔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세월호 기억부스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추모활동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물결을 더욱 널리 퍼트리 고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진행이 되었는데요. ‘세월호 군산기억모임’과 함께 연대하여 ‘세월호 9주기 기억식’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억식 당일, 아침 일찍부터 모여 부스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11시부터 5시까지 부스가 운영되어 아침 일찍부터 모여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세팅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청소년들은 불만보다는 “이렇게 물이 고이지 않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서로 물어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월호 기억 부스’에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듣기도 하고, 세월호 기억 팔찌를 만들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거울 인증샷존을 운영해서 인증샷을 sns에 올릴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마시멜로우를 나눠주어서 온라인 상에서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후에는 날씨가 맑게 개어서 더욱 기분 좋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9주기 기억식에서는 4.16목념,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및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4시 16분에 다함께 세월호를 추모하는 목념을 한 후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청소년 대표로 달그락 연합회의 조민지 회장이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F5 미디어 자치기구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라이브 방송으로 전달했습니다. 민생실현연대 대표님과 달그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와 기억식 송출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세월호 참사와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전단지를 나눠준 강한서 청소년은 “이상한 취급을 당해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세월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도 듣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진행해본 건 처음이라 의미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활동을 마친 후 기자단 이보은 청소년은 달그락에서 활동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활동이 어땠냐는 질문에 “학교에서는 리본만 만들고 말았는데, 이번에 달그락에서 활동을 하며 처음으로 세월호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된거 같아요.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청소년의 참여에서 활동의 참된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도록, 달그락은 계속해서 달그락 거리고 있습니다. / 조은빛 간사

제3회 더불어 사는 세상 공모전 '모두가 편리한 우리동네'



모두를 위한 우리동네 함께만들기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문화가 달라도
모두가 편리한 우리동네
작은 생각으로 모두를 위한 우리동네 함께 만들기

공모대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지역주민

공모내용 모두가 편리한 우리동네 (일상생활에서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문화에 관계없이 물건, 장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방법!!
ex) 양손잡이 가위, 저상버스, 학교 앞 옐로우 존 등)

공모일정 - 접수: 2023. 5. 22.(월) ~ 6. 23.(금)
- 결과발표: 2023. 6. 29.(목)

심사기준	주제 적합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30점	30점	40점

시상내역 - 더불어사는세상 : 10명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 참가상 : 40명 추첨 10명 -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30명 -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접수방법 네이버폼으로 접수



문의내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 윤보나 466-7981 / 070-8897-4719 카카오톡(girlrocker)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재)에서는 지역 내 17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3회 더불어 사는 세상 공모전 - '모두가 편리한 우리동네'를 진행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 공모전 - '모두가 편리한 우리동네'는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문화가 달라도 모두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물품 및 장소를 찾아 사진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방식의 공모전이다.

2023년 6월 23일까지 접수이며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내용 중 심사기준(주제 적합성 30점, 공익성 30점, 실현 가능성 40점)에 의거하여 합산점수 최고점인 10명에게 상장 및 상품, 참여자 중 40명에게는 참가상품이 지급된다.

수상한 의견은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고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팀 사회복지사 윤보나(466-7981, 070-8897-4719)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 군산시 칠성안3길 37 (우 54166)
Tel: 466-7981, 070-8897-4719
www.gs1004.or.kr

'글쓰기'로 이어지는 연대의 현장

-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글넷 [그냥 청소년이 좋아] 출판기념 북콘서트



청소년활동가(지도자)에게 글쓰기란 무엇인가? 단순히 기록을 넘어 성찰의 순간이다.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글로 정리하려면, 순간의 본질을 분석해야하고 의미를 부여해야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쓰기를 통해 더 나은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의 시작점이 된다. 청소년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공감하게 만든다. 공유는 즉 변화이다.

청소년활동글쓰기네트워크(이하 청글넷)은 청소년활동 현장에 있는 청소년지도자, 활동가의 글쓰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온라인 네트워크로, 현재 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군산의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사무국 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현장에 있는 지도자, 교사, 활동가 등 청소년

을 만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글쓰기 세미나, 릴레이글쓰기, 월간백일장, 공저 프로젝트 같은 여러 글쓰기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청글넷 활동을 통해 2022년 13명의 청소년지도자들의 삶과 현장이야기를 담은 '그냥 청소년이 좋아'가 출판했고, 얼마 전 5월에는 제 19회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북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청소년지도자가 된 계기를 주제로 한 '활동의 시작', 활동사례를 담은 '내가 네 편이 되어 줄게', 앞으로의 비전과 바람을 담은 '같이 걸어도 되지?' 세 개의 목차에 순으로 공저자들의 진솔한 활동현장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무기력한 고등학생이었지만 동아

리활동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 속 빛을, 사막의 오아시스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통해 돕고 싶습니다.", "청소년이라서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하는 대상이 청소년일 뿐입니다.", "청소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옆에서 환경을 조성하고 지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쓰기 활동을 넘어, 공저프로젝트와 북콘서트는 또 다른 차원을 열었다. 공저자 모두 북콘서트의 주인공이자 스태프의 역할을 맡았다. 축하공연, 진행, 방송송출, 홍보활동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글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는 순간순간이 감동이고 기적이었다는 감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동료가 되어, 각자의 지역을 기점으로 청소년활동가들의 역량과 활동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청글넷과 [그냥청소년이좋아] 북콘서트는 전국에 따로 떨어져있던 청소년지도자와 잇게 했고 공감대와 연대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2023년에도 또 다른 공저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어떤 청소년지도자의 삶 이야기가 실리고, 또 어떤 인연을 엮어나갈지 기대가 된다. 같은 현장의 사람들의 삶을 모으는 것. 글로써 만들어가는 변화가 우리는 그저 즐겁다. / 정이한 간사

청소년자치연구소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 세한빌딩 3층
Tel: 063-465-8871 FAX: 063-466-8871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 “소중한 너와나” 사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재)에서는 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여 형제·자매와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비장애 형제·자매가 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옹호자 및 지원자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에 목적을 두는 프로그램 ‘소중한 너와나’를 실시한다.

군산시민으로서 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비장애인 형제·자매 (11세~16세)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이주동안 선착순(신규모집 우선)으로 모집한다.

상/하반기 각 6회씩 진행할 예정이며 옥산면에 위치해있는 ‘마주보다심리상담소’에서 진행된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형제·자매에게 스트레스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발전시킬 예정이기에, 군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이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사회통합팀 ☎466.7981~2로 문의하면 된다.



2023 소중한 너와나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치유 & 힐링 프로그램

참여대상 장애인형제·자매를 둔 비장애형제·자매 6명 (11세~16세)

신청방법 5월 26일 ~ 6월 8일 서류접수 마감 (방문, 메일, FAX)
 메일 : lhry34@naver.com (담당자 메일)
 FAX : 063)466-7983

선정결과 2023년 6월 9일 개별연락 (신규참여자우선선정)

진행장소 마주보다 예술심리상담 연구소
 옥산면 당북리 33 LK건물 2층 202호

..... 프로그램 상세설명

비장애 형제·자매의 건강한 심리성장을 위한 다양한 집단 심리상담

날짜	시간	진행내용/상담기법
6월 15일	17:00 ~ 19:00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나는요” / 독서치료
6월 22일		PPAT 그림검사 “사과에서 사과 따는 사람” / 투사적 그림 검사
6월 29일		스트레스 파서랜드 / 놀이치료
7월 6일		마음의 소리를 찾아서 / 문학치료
7월 13일		마음역사 / 미술치료
7월 20일		상담을 마치며.. “자성예언” / 사진치료
7월 20일		상담을 마치며.. “자성예언” / 사진치료

※ 상황에 따라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1인 10,000원 **문의** 사회통합팀 이혜림 063-466-7981~2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 군산시 칠성안3길 37 (우 54166)
 Tel: 466-7981, 070-8897-4719
 www.gs1004.or.kr



BLUES LINE UP

2023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KOREAN BEER KOREAN MALT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2023 GUNSAN BREWS & BLUES FESTIVAL

6.16 목
 신촌블루스
 김목경밴드
 마인드바디앤소울
 Shuffle Machine (JAPAN)

6.17 목
 한영애밴드
 최항석과부기몬스터
 김대승러스트벤티티
 김병호블루스밴드
 소울트레인
 Felix Slim (USA)

6.18 일
 김장훈과 밴드 한국사람
 하현진밴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타이킴블루스밴드
 윤병주와지인들
 CROS (USA)

6.16^{FRI} ~ 6.18^{SUN} 12:00 ~ 22: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Parking Lot





군산시

다 함께
미래가치를 높이는
튼튼한
국립군산대학교

청년들의 소통의 장

#군산대에서 열어줄게요!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A photograph of a male dentist in a light purple uniform, wearing a blue surgical mask and glasses, pointing at a monitor displaying a dental X-ray. A female patient is seated in a dental chair, looking at the monitor. The setting is a modern dental clinic.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행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겻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전라북도립국악원 대학생 협연의 밤 바리톤 이현준 독창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굿(Good)보러 가자 군산예술의전당 전주시립합창단 특별기획공연 '합창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문보미 피아노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오정선의 피아노 독주회 꿈 사랑 꽃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뮤지컬 '신데렐라' 군산예술의전당	2023교보 노블리에 콘서트<추억속으로> 군산예술의전당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정기공연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주시립교향악단 제262회 정기연주회 제28회 정기연주회 앙상블의 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군산어린이공연장 6월 기획 공연 '아기돼지야 준비해!' 21회 사랑의 대음악회 군산예술의전당 뮤지컬 알쌍달송캐치테니핑 '신비한 상자를 열어라' 베토벤 With 베누스토 4번째 이야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뮤지컬 알쌍달송캐치테니핑 '신비한 상자를 열어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제29회 협주곡의 밤 군산예술의전당	구강보건의 날 어린이인형극 군산예술의전당 정혜선 엄은경 피아노 듀오의 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라도 천년의 춤 목요국악 예술무대 - 단막 창극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군산예술의전당 뮤지컬 영웅 김정미 바이올린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반려동물과 온가족이 함께하는 광장콘서트 박정현 콘서트 The Brige 군산예술의전당 뮤지컬 영웅 앙상블 클랑 제2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기간 2023-06-01 ~ 2023-06-05 기간 2023-06-02 ~ 2023-06-06 기간 2023-06-09 ~ 2023-06-22 기간 2023-06-18 ~ 2023-06-24 기간 2023-06-20 ~ 2023-06-25 기간 2023-06-26 ~ 2023-06-30 기간 2023-06-29 ~ 2023-07-05
뮤지컬 영웅 앙상블 파르베 제14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군산예술의전당	오케스트라 판 제3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목요국악 예술무대 - 예술로 노닐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제20회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 동초제관소리 정기공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2회 브런치콘서트 군산예술의전당 가족뮤지컬 (꼬마버스타요-레스큐타요) 베스트스트링첼버오케스트라 제24회 정기연주회 2023 타임캡슐 슈퍼콘서트 전국투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기간 2023-06-03 ~ 2023-06-08 기간 2023-06-27 ~ 2022-09-03
가족뮤지컬 (꼬마버스타요-레스큐타요) 제1회 제이런테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문화가 있는 날: 라틴 & 탱고 군산예술의전당				



전시 | 군산 예술의전당 전시

- 드림전 3회
- 제14회 군산 여성위원회 정기전
- 제7회 이복성 개인 사진전
- IT's ME
- 레이어드 소울
- 전통 복식 공예 작품 전시
- 이권숙 개인전

전시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

- 제29회 한중서법교류전 - 갤러리O
- 동화작가 전이수 특별전시 <안녕?마음아> - 갤러리S, 갤러리O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개정동)
(063) 452-4075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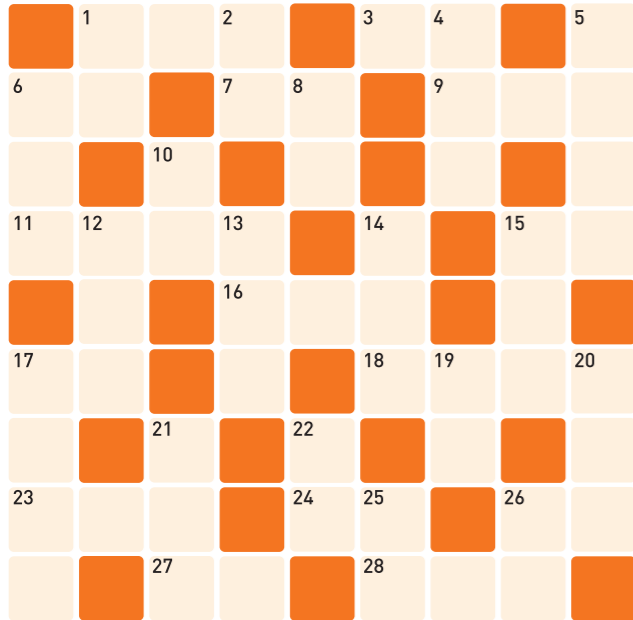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 466-7981

낱말 실력도 늘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43



<제142호 퍼즐 정답>

헤	비	급	자	찰	과	상
어	우	크	라	이	나	품
핀	잔			중	직	권
고	자	질	주	업		
기	증				소	반
명	자	우	스	개		
비	서	장			소	파
상	석	가	탄	신	일	자
구	두	쇠	로	대	항	마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446-1856 E-mail. jay0810@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5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1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 03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인 음력 5월5일.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한다.
- 06 종이로 만든 신주(神主).
- 07 붓이나 필기구 등을 꽂아 두는 통.
- 09 무엇을 치거나 두드리거나 다듬는 데 쓰기 위하여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도구. 야구000.
- 11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된 사채.
- 15 신비스러운 경지.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
- 16 당근.
- 17 아이를 뱀 기미.
- 18 매우 귀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장은 영애가 입사한 뒤로 회사에 재수 좋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0000가 들어 왔다고 좋아했다.
- 23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24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
- 26 원본을 그대로 베끼. 또는 베낀 책이나 서류.
- 27 복싱.
- 28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설.

▼ 세로 열쇠

- 01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 02 부부로서의 짝.
- 04 다섯방위를 상징하는 한국의 전통 색상. 즉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가운데는 황색.
- 05 쇠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 06 오랫동안 풀어가며 싸우는 전쟁이나 시합.
- 08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뜻이 통하도록 말을 옮겨 줌.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 10 사는 곳을 옮김.
- 12 프로펠러 모양의 팬을 달아 실내의 더러워진 공기를 바깥의 맑은 공기와 바꾸는 기구.
- 13 조선 연산군 때에 창고 중에서 고온 계집을 뽑으려고 전국에 보내던 벼슬아치.
- 14 근무할 때에 입는 옷.
- 15 격이 낮고 속된 말.
- 17 태풍 중심부에서 반경 100여 km 안쪽의 지역. 원심력으로 인하여 이 관내에서는 조용한 기상 현상을 보인다.
- 19 몸의 부피, 몸집.
- 20 포르투갈의 수도.
- 21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
- 22 양쪽에서 끼고 공격함. 아구에서 누(鼯)와 누 사이에 있는 주지를 몰아 이웃시키는 일.
- 25 여자가 화장할 때에 입술이나 뺨에 찍는 붉은 빛깔의 염료.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당신의 구독이 군산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MAGAZINE
Gunsan
매거진군산 구독신청서

군산의 문화와 언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거진군산은 100호까지 무료로 발행이 되었으며 101호부터 유료로 배포가 됩니다. 본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매달 잡지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063)446-1856 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jay0810@hanmail.net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 수납기관명 : ICM(아이씨엠) · 대표자 : 이진우 · 사업장 주소 : 전북 군산시 큰생길 1 · 사업자등록번호 : 401-05-33000 ·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 매거진군산 구독(7,000원 /월)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구독(10,000원 /월)

■ 구독받으실 주소

· 출금계좌 예금주명 :	· 예금주 생년월일 :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금융기관명 :	· 출금 계좌번호 :	
·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 신청인명 :	· 예금주와의 관계 :	
·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보리와 맥아의 주산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맥주!!



2023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KOREAN BEER KOREAN MALT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2023 GUNSAN BREWS BLUES FESTIVAL

6.16^{FRI} ~ 6.18^{SUN}

12:00 ~ 22: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Parking Lot



군산시